

믿음의 열매

2012년 3월 / 창립 35주년 기념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막 6:37)



목차

- 6 발간사: 주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 김용환 담임 목사
- 7 축사 | Michael Davis 감리사
- 8 믿음의 열매: 꿈과 사역 | 윤은상 편집위원

제1부: 회고와 권면

- 10 교회 창립기의 삶 | 라영복 초대 목사
- 12 교회의 건강진단 | 홍석환 감리사
- 14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뿌리 깊은 전통 | 손경호 목사
- 15 세계는 우리의 교구 | 김용환 목사
- 16 사랑을 빛진 자, 사랑으로 그 빛을 갚는 교회 | 정유상 목사
- 17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 최해순 전도사

제2부: 꿈과 기원

- 18 좌담: 우리 교회의 꿈과 전통 | 정리: 정유상 목사
- 22 대담: 씨를 심은 사람들 | 정리: 장은영 집사
- 25 북부 보스톤 교회를 향한 기도 | 김지영 집사
- 26 나의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 | 심원세 권사
- 27 청장년부 시절의 추억 | 안일민 권사
- 28 백기 <白旗>, 가을 소묘 <素描> | 조정하 교우
- 30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 김원엽 장로
- 31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박재영 장로

제3부: 선교와 수련

- 32 도미니카 (치과) 선교 | 최인경 권사
- 34 멕시코 선교 여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 신 영 집사
- 36 필라델피아 선교 여행 | 권회근 학생
- 37 Mission Trip to Philadelphia | 안예은 학생
- 38 호산나 찬양 사역 (Joy Ministry) | 김지영 집사
- 40 여선교회 수련회: 삶의 충전, 믿음의 충전 | 이군숙 권사
- 42 주일 성경 공부: 성경속의 여성들 | 윤선희 집사

제4부: 봉사와 헌신

- 4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 이기환 권사
- 45 35년 전통의 임마누엘 성가대 | 정대훈 집사
- 46 황금어장은 우리의 그림 | 이재숙 권사
- 48 같은 마음, 같은 비전, ... 선교를 위하여 | 박순혜 집사
- 50 여선교회의 뿌리와 꿈 | 정리: 김지영 집사
- 52 노인사역은 왜 필요한가? | 장종문 권사
- 54 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장년부의 역할 | 김동원 집사
- 55 Exciting Opportunities for the English Ministry | 박태훈 교우
- 56 어린이들은 우리의 꿈 | 주일학교
- 58 한국의 전통 문화 | 조태섭 전도사
- 60 우리의 열과 긍지를 심어 주는 한국학교 | 장인숙 권사

제5부: 사역 관련 자료

- 61 사역 방향과 계획
- 62 속회 운영 지침
- 64 교회 헌장
- 65 창립 기념 행사 보고
- 66 교회 역사
- 68 교회 연혁
- 70 교인 의식 설문조사
- 74 화보 모음

79 편집후기

발간사

주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김용환 담임 목사



금년에 북부 보스톤 교회가 창립된 지 35년이 됩니다. 사람에 비교하면 35세 된 청년입니다. 그 나이의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들은 결혼한 자녀들을 통하여 손자나 손녀를 갖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즈음 우리 교우들이 손주들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만 보아도 35세인 젊은이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복된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 영광이고 기쁩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가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많이 태어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결혼한지 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걱정하는데 영적인 자녀가 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데도 말입니다.

북부 보스톤 교회가 처음 창립되었을 때 참여한 분들은 미래에 태어날 많은 영적 자녀들을 꿈꾸며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요즈음도 처음에 가졌던 설레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많은 생명의 출생의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부터 교우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소그룹 모임에 초대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21일을 기다려 병아리가 나오듯이 소그룹의 모임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에도 사랑이 필수 요소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솔한 사랑이 발견될 때 믿지 않는 분들도 신앙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섬길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새 생명 출생을 공동 목표로 정하고 힘차게 달려 간다면 15년 후에는 우리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북부 보스톤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동안 변함없이 앞장 서서 열심히 달려오신 교우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사랑을 보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와 다짐을 묶어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창립 35주년 기념 준비에 수고한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Michael Davis 감리사

Grace to you and pe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t the time of the celebration of your 30th anniversary, I quoted these words from the Apostl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constantly praying with joy in everyone of my prayers for all of you, because of your sharing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I am confident of this, that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among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by the day of Jesus Christ. Philippians 1: 3-6.



These words ring true today on your 35th anniversary. It is a privilege to serve Christ with you as your District Superintendent. I give God thanks for the many ways you continue to share the Good News to your community and the world. Your great vitality and faith is a witness to the power of Christ at work. You truly live out the miss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o make disciple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It is my hope and prayer that God will continue to richly bless your ministry into the future so that through the power of God's Spirit working in your midst and world will be transformed. May God continue to bless you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In Christ,
Rev. Michael B. W. Davis



믿음의 열매 - 꿈과 사역

윤은상 편집위원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터전으로, 지역내 한인들의 활동 구심처가 되어 온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창립한지 35주년을 맞았습니다. ‘믿음의 열매’ 제5호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꾸어온 ‘꿈과 전통’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사역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35주년 기념 행사의 공통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교회의 꿈은 창립 형성기 - 성전 구입기 - 개방 사역기 - 장기 계획기 - 조정 전환기 등, 지난 30여년의 역사 속에 면면히 피어 왔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기본 신조 (구원/전도/사랑)와 감리교의 전통(참여를 통한 사회 사역) 및 뉴잉글랜드 연회의 목적(국제 선교와 교회간의 협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나름의 전통(돌봄 사역)을 가꾸어 왔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이러한 꿈과 전통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담긴 사역의 단면을, 교인들의 글과 자료로 그간 창간호에서 제4호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왔습니다.

전통으로 자리잡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창간호(발행인: 김 성 담임목사, 책임 편집: 신영목 장로)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1993년 3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내외 사역의 확장을 꿈꾸면서 지역내 한인들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 중흥기(1986-96)를 맞던 시기였습니다(교인핸드북, 2010, 15면 참조). 교인들의 기도문, 신앙간증 등과 함께 ‘교회생활의 표준’을 제시하고, 교회의 역사와 교인

들의 사진을 곁들인 총 50면의 책자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제2호(책임편집: 남궁연 장로)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1997년 3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전중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직후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주제로 교인들의 다양한 신앙 간증과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믿음의 열매 제3호(책임편집: 신영목 장로)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준비위원장: 이문봉 장로) 2002년 3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자성속에 전환’을 모색하던 시기 (1997-2002)를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인들의 갈급한 신앙고백 및 간증의 글과 신앙 좌담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현재 위치’를 교인들의 설문조사로 파악하였고, 교회의 약사를 증보하면서 각 부서의 활동 모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제4호(책임편집: 최인경 권사)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준비위원장: 남궁연 장로)를 집약하는 발간물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예배, 춘계 부흥사경회, 추계 부흥회, 창립기념 음악회, 역사자료 정리 편찬 등의 행사 및 사업과 더불어 특집으로 꾸며진 제4호는 ‘우리교회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교회 역사의 회고와 연혁, 사역활동의 보고 및 교인들의 글마당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힘쓴 홍석환 담임 목사 재임기간(2001-2010)에 ‘도약

을 위한 교인들의 생각'을 모아 정리한 비전 제안서와 중장기 사역방향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제5호 - 꿈과 사역

2011년 4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김용환 목사: 장기 사역 방향), 교회역사위원(윤은상 집사: ‘믿음의 열매’), 평신도 대표(백이태 장로: 장기 선교 방향), 예배부장(이기환 권사: 기념 예배), 전도부장(최인경 권사: 기념 부흥회), 상록회(장종문 권사: 상록회 운영 계획), 재정부장(김복경 권사: 예산 지원), 여선교회(박순혜 집사: 여선교회 활동), 남선교회(서강석 집사: 남선교회 활동) 등, 관련 부서를 담당 임원들이 준비위원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1-12년에 걸쳐 추진할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를 기념예배, 부흥회, 음악회와 함께, ‘믿음의 열매’를 발간, 중장기 사역계획의 재정리로 결정하고, 이들 행사의 일관적인 주제로, ‘꿈과 사역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믿음의 열매’ 제5호도 우리 교인들이 그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꿈과 신앙생활의 소망이 담긴 글과 자료를 모아 편찬하기로 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다듬어 마련한 간증과 묵상 그리고 선교 여행기를 교인들로부터 모집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살아오신 원로 교인, 최근에 등록한 새신자, 교회의 각 부서를 맡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각 부서 담당 임원, 중고등부의 학생, 주일학교의 어린이 그리고 연회의 담당 감리사와 전임 목회자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였습니다.

교회역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인핸드북(2010)에 의하면,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교회의 꿈은, 기독교적 지역이민사회 공동체 마련(창립 형성기), 자립 교회의 기반 조성(성전 구입기), 지역사회와의 연계 추진(개방

사역기), 교회부흥의 저변 확대 구상(장기 계획기), 그리고 장기계획의 점검과 재정립(조정/전환기) 등으로 변천하여 왔습니다.

꿈과 비전은 세상과 역사의 궤도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의의 물결이 냇물처럼 흐르고 폭포수처럼 쏟아 내려야 한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조국 독립의 터전은 젊은이들의 바른 교육에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신념(참조: 믿음의 열매, 제4호, 2007, 18면),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라는 빌리 그래햄 목사의 설교 메세지 등은 듣고 보는 이들에게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노래한 가곡 중에 ‘가고파’(홍난파 작곡)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민족 시인 노산 이은상 선생이 북녘 땅을 바라보며 읊은 ‘통일예의 기원’은 ‘꿈’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우리의 염원입니다. “주여! 이 땅에 통일과 자유와 평화를 / 비 내리듯, 꽃 피우듯 부어주소서 / 그 땅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 그 땅에서 살게 해주옵소서.” (참조: “조국강산” 1974, 164면)

‘꿈과 사역’을 주제로 한 ‘믿음의 열매’ 제5호의 발간을 위하여 김아름 교우님, 박순혜 집사님, 이군숙 권사님, 이기환 권사님, 정유상 목사님, 홍성도 권사님이 편집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전통’을 주제로 한 교인 좌담회의 내용은 신 영 집사님과 정유상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고, 원로교인과의 대담은 장은영 집사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시고 좌담회와 대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들이 함께 읽고 생각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발간해 온 ‘믿음의 열매’가, 후일 창립 40주년, 50주년 등을 기념하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기의 삶



라영복 목사

첫번째 이야기

지역 주민의 봉사를 위해서 보스톤 한인회와 협력하여 보스톤 한인 Community Center를 창설하고 원장을 맡았다. 거의 삼년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인생경험은 목회와 나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경험 중 한가지. 저녁 7시. 전화로 다급한 요청을 받고, 차에 어린 아들과 딸을 태우고 한 시간 운전하여 가정불화의 집에 도착하였다. 의외로 시간이 지나 밤 12시 반에야 그 집에서 나왔다. 우리 집으로 돌아 오는 도로에서 차가 멈춰 서 버렸다. 어린 두 아이는 차 안에서 11월의 추위에 고생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차 밖에 나가 간간이 지나가는 차들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다행이 지나가던 차 한대가 섰으나, 휘발유라면 도올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 서준 차는 차에서 기름을 빼낼 방법이 없다고 미안하다면서 가버렸다. 새벽 4시 쯤에 한 차가 다가왔다. 그리고 한 노인이 차에서 내렸다. 기름통을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가 기도중에 자기에게 기름통에 휘발유를 넣어서 아무 곳에 가면 정지한 차가 있으니 부어주고 오라고 하여서 왔다고 하였다. 그가 떠날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휘발유 값 얼마를 드려야 할지 여쭙니,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른다. 집에 도착하니 거의 새벽 5시가 되었다.

두번째 이야기

1978년 8월 23일 수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New Hampshire주 Epping Town에 있는 Hedding 감리교회 수양관에서 학생회 주최로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였다. 29명의 중고등학생과 여러명의 어른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양관에 점심시간쯤 도착하였다. 식사 후 준비물들을 점검하니 여러가지 운동기구, 카드놀이, 노래자랑, 댄스용 프로젝트 등,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놀다가 갈 준비가 완벽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몰랐던 사실은, 신실한 지도 선생 두 명 (MIT 학생 전달훈, WPI 학생 유대호)이 두 달 동안 이 수양회와 학생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였다는 숨겨진 이야기였다.

놀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왕 왔으니, 도착 예배부터 보자”고 종용하여, 싫은 기색이 역력한 학생들을 앉혀 놓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준비 찬송으로부터 시작된 예배 분위기는 성경봉독, 찬송, 말씀의 선포, 통성기도 등으로 이어 지면서, 성령의 불길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였다. 대성통곡하는 학생, 바닥에 주저 앉아 소리소리 지르는 학생, 땅바닥을 뒹구는 학생, 방언의 문이 터지는 학생들, 어떻게 하여야 참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소리 높혀 애통해 하는 학생, 서로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학생들, 예배실은 온통 성령으로 넘쳐있었다.

오후 3시 쯤에 시작한 예배는 저녁 식사도, 밤참도, 아침 식사도, 점심식사도 거른 채 시간으로는 24시간 이상 성령의 역사 안에 시간 개념도 잊은 채,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절대 확신 안에서, 처절하면서도 장엄하고, 철저한 회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셨다.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증언하기 위해 그들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말할수 없는 감격의 은혜에 감사로 바치며 보답하려고, 목사님과 급히 초청하여 참석하신 Ralph Bruce 감리사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결단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창조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입을 모으며, 주님 찬양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8월 27일 주일 예배는 하기 수양회 보고 예배로 드렸다. 이들의 사회, 기도, 찬양, 간증은 예배를 완전히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성령세례의 역사를 자기 가정 전도와 지역 선교에 바치겠다고 주님께 다짐하였다. 이러한 성령 체험과 은사의 역사는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은혜중심으로 인도하였다. 교회는 새로운 활기로 줄기차게 생동하였다.

세번째 이야기: On the Road to Emmaus

According to the story recorded by St. Luke 24:13-35, there were two who were on the road to Emmaus, about a two hour walking distance from Jerusalem. They were disciples of Jesus, possibly husband and wife, and were not totally committed with unconditional faith to Jesus. The reasons were:

Firstly, for three years they followed Jesus with a hope that He would deliver Israelites from bondage and become the almighty leader of a new Israel. They

observed how Jesus was hung on the cross and died a violent and meaningless death, and thought that the crucifixion of Jesus made a mockery of their life journey. Most of all they were in deep despair. They thought they would be a part of nation-building with Jesus, yet these hopes evaporated with Jesus' death.

Secondly, they heard that women had talked about Jesus' resurrection. How could it have happened? There had never been a record of human resurrection. They could not believe it. It may have been a hallucination. The women must be having an undreamed-of dream. It must be a make-believe story. Don't tell us anything that we cannot accept.

Thirdly, as Jesus came up and walked along with them,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As they were in a deep despair, they did not know what they were seeing. They had heard many times of the personal witness of other people who had encountered Jesus personally. It had changed their lives. Yet, these two did not have their own personal life-changing experiences. They had not done their own witnessing.

Now, let me ask each of you as one of the members of our church -- How has your faith-life been? Are you in deep despair in doubt of the resurrection and having trouble in believing that the Spirit of Jesus is with us now? Let's get some positive inspiration from the story of the two who were on the road to Emmaus.

〈라영복 목사:1977년 본 교회를 개척 창립, 현재 Heritage UMC 교회 (Briantree, MA) 담임〉



홍석환 감리사

교회의 건강진단 (Healthy Congregation)

얼마 전 뉴잉글랜드 지도자 수련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 침례교, 동방교회 대표들이 모여 뉴잉글랜드의 종교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교적 전략을 수립하는 지도자 훈련이었습니다. 24년 전 유학을 왔던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신학교에서 종교사회학 교수였던 낸시 에머만 박사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종교적 상황, 특히 뉴잉글랜드의 상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의 20-40대 젊은이들은 2-3년 사이로 직업과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사는 지역을 옮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한 교회에서 진득하게 평생 신앙생활하던 패턴은 이미 사라지고 이동하는 젊은 인구를 어느 교회가 포용하느냐가 교회의 처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외로운 도시생활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생각이 자유롭고 진취적인 이곳 뉴 잉글랜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미국에서도 선교지역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들간의 워샷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 교회, 그리고 사역!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지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곳, 아직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은 교회 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한 마음 한 목적으로 사람이 모여 의미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섬길 수 있을

까?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교우들께서도 늘 갖고 계신 질문일 것입니다.

담임목회를 하다가 65여개 교회를 돌보는 감리사로 파송 받아 일년이 지난 지금 세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 새롭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주된 관심사요, 목사들과 각 교회의 교우들과 나누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무섭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치않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날마다의 기도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35주년을 맞는 우리 북부 보스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지금 연합 감리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건강 캠페인에 맞추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건강의 척도를 재는데 교회도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하는 5가지 기준을 연회 본부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진단하는 척도는 “예배”입니다. (Inspirational Worship Service) 한 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감동과 깨달음과 깨어나는 은혜를 많이 받는 예배”였는지가 척도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징후는 변화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어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Making New Disciples)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전전하는 수평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던 불신자가 말씀을 받고 제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회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라이언스 클럽’ 같이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세속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제자를 삼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놀랍게도 흔치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건강의 척도는 변화를 경험한 뒤 기도와 말씀과 실천하는 구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Growing in Discipleship) 결혼한 부부는 사랑을 나누고 그 결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낳은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으로 홀로 서기까지 돌보고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은혜 받고 순간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닌 교인들은 많지만 성숙한 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신들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To make disciple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교인들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Reaching Out)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분석해보면 건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체활동에 예산과 교인들의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교회라 해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변화 받고 성숙한 교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하고 자신이 지닌 재능을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Spirit of

Generosity)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고 신앙이 좋은 듯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과 교회의 건강유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내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년동안 섬기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친정 집 같기도 하고 두고 온 자녀들 같기도 한 북부 보스턴 교회가 35년 성인이 된 마당에 전임 목사로서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든직하게 교회 본연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건강한 교회 현상은 8년 동안 제가 노래의 후렴처럼 강조했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어 마음껏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교회”입니다. 받을 줄도 알고 (Receive full grace and love of God in Christ),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도 알고 (Celebrate the grace and love of God mindfully), 그래서 힘도 있고 넉넉해진 교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지닌 사람들 (Share it with people outside the church)이 되시길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홍석환 목사:본 교회 제5대 담임,
현재 NE 연회의 RISEM지방 감리사〉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뿌리 깊은 전통

1978년 보스톤 지역에 도착한 나에게는 나갈 만한 한 인교회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도로변이 눈으로 덮혀 있어서 마음도 추웠던 것 같다.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위해 왔기 때문에 한인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

다음날이 추수감사절이란 것도 참으로 의미있었던 것 같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대서양을 횡단한 청교도들이 이 지역에서 첫 번 추수감사절을 드렸다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이 더했던 것 같다. 다행히도 얼마 전 가까운 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형님 가족과 함께 교회를 방문했다. 북부보스톤 교회와 인연을 시작한 의미 있는 추수 감사 주일이었다. 당시는 로렌스교회라고 흔히들 불렀던 것 같다.

이곳에서 공부하신 담임목사님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다. 비록 내가 속한 장로교단은 아니었지만 교단 장벽의 부담을 쉽게 떨치고 신앙에 안정을 찾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성도들의 열정과 순수함이 기존교회와 다른 모습을 느끼게 해주었다. 형님처럼 어머니처럼 뜻내기 청년 학생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은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었다. 그때 받은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으니 나는 영원히 북부보스톤 교회와 맺은 인연에 맴돌아야 하는 사람인가보다.

이민자들의 자녀들과 함께 학생회를 조직하고 이곳으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지도하며 지냈던 시간들은 내게

는 신학공부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노라는 간증의 순간들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의 순수한 헌신이 교회의 든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감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신학 색깔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누가 더 많은 공부를 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속회 모임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분들이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으며 그것이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리내린 의미였다. 그렇기에 '예수 잘 믿지 않더라도 교회를 가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시절이었다. 어쩌면 지금도 뿌리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할 주제들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더 많은 교인들과 더 잘 조직된 교회로 자리잡아가지만 굳은 일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숨은 헌신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교회이리라 생각된다.

〈손경호 목사:본 교회의 첫 전도사로 교역, 청년학생부 (1978-80), 청년부 (1985-86) 담당, 현재 보스톤 성령교회 담임〉



김용환 담임 목사

세계는 우리의 교구

십년 전, 이 십년 전에 비하여 세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모릅니다. 지형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먼 곳도 옆 동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이웃의 개념이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심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즈음은 아무리 먼 곳도, 정치적인 이유로 갈 수 없는 곳이라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35주년을 맞는 북부보스톤교회의 이웃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메사츄세츠주와 뉴햄프셔에 사는 한인들만이 우리가 돌볼 대상일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언어와 인종도 초월해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단이 지역에 따라서 나는 교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라고 웨슬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당시에는 황당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도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보다는 오히려 말없이 행동으로 나누는 기쁜 소식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가서 선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 세상이 우리들의 교구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앤도버에 있으면서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년 여선교회가 바자회를 할 때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뉴햄프셔의 노인 사역에 여러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치유센터에 오신 분들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린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의 여름성경학교도 우리가 도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필라델피아에서 그린랜드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도시선교에 참가하여 여름성경학교를 개설하고 거리 전도를 하였습니다. 비전교회와 멕시코에 가서 함께 선교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매달 Arise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습니다. 지역사회 지원선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후 50주년을 맞이할 때는 북부 보스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다인종 그리고 여러 국가에도 복음의 열정이 퍼져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는 웨슬리의 말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빛진 자, 사랑으로 그 빛을 갠 교회

정유상 목사

이 땅에 홀로 서 있는 듯 하여도,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듯 하여도, 혼자서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미의 모체에서 꺼내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과 공급, 그리고 보살핌을 받지 않고서는 어린 생명체, 제 스스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영글게 되기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식주라는 시인은 불개 영글은 대추 한 알 속에서도 그 속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있었을 지를 떠올려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홀로로서는 ‘그리 되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 한 마디, 적절한 칭찬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과 따끔한 질책이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 듯, 우리는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빛’을 지며 오늘도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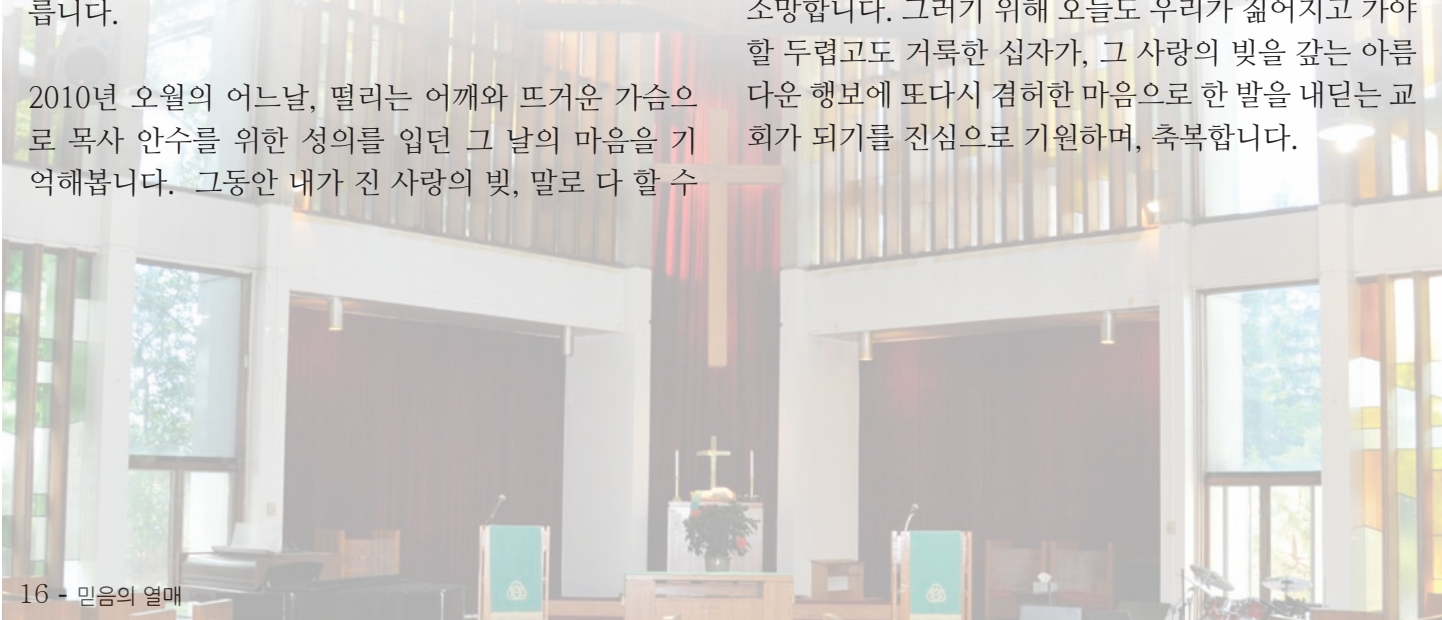
2010년 오월의 어느날, 떨리는 어깨와 뜨거운 가슴으로 목사 안수를 위한 성의를 입던 그 날의 마음을 기억해봅니다. 그동안 내가 진 사랑의 빛,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의 빛. ‘빛을 갠 마음으로 살라’고 입혀주신 성의(聖衣)인데, 어느샌가 또 다시 누군가에게 갠을 받고 주려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칩니다.



신앙인은 어쩌면 우리가 진 ‘사랑의 빛’들에 민감해져서 살아야 할 이들입니다. 그리고 신앙공동체는 사도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빛들을 갠자 하는 거룩한 행보에 앞장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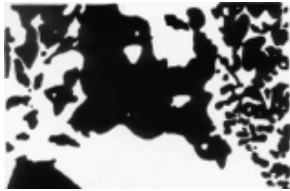
창립35주년을 맞은 북부보스턴 교회. 이제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훗날 우리의 자녀세대를 통하여서도 면면히 이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젊어지고 가야 할 두렵고도 거룩한 십자가, 그 사랑의 빛을 갠 아름다운 행보에 또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최해순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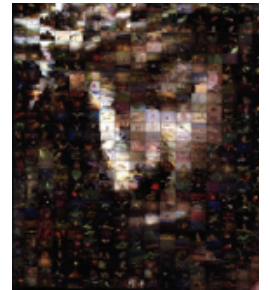
음영 효과가 있는 예수님 그림은 사진인데 분명하지가 않다. 확실하면 좋은데 한 번에 알아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하나 보는 눈도, 전체를 보는 눈

도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하는 지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면 좀 더 명확해 지기도 하지만 사실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 당신의 모습을 눈이 녹은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흔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증명사진을 보듯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 살아가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여정이 아닌가? 남을 위해 산다고? 말도 안 된다. 그 역시 나를 위함이 아닌가? 그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예술 작품으로서 사진 보다는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때로는 사진이 담지 못하는 신비로움을 그림은 표현해 내기도 한다. 또한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시선까지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숨씨로 예수님을 그린 것이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기술로 표현해 낸 것이다.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도 대부분 소설이 주는 감동을 전하지 못한다. 오히려 소설을 읽을 때의 상상력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영화의 사실적 장면들에 의해 나의 상상의 세계는 간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기쁨이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어렵듯이 알아가는 기쁨, 나만의 꿈으로 만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다. 내가 읽은 소설과 내가 읽은 소설은 같은 소설이지만, 서로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을 그리 듯,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서로 삶 속에서 다른 형상으로

만나 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만날 때 마다 다른 느낌, 다른 감정,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신다. 저마다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옳고 나의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저마다의 마음이 다른 것이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저마다의 그림이 다른 것이다. 이렇듯 성경은 작은 스토리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보다 크게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수 많은 사진들을 모아 예수님의 얼굴로 만들어진 사진을 본적이 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예이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알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의 외모뿐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습관 까지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어찌 확실히 보여 줄 수 있을까? 때로는 한 장의 사진 보다, 그 사람이 쓴 한 장의 편지에서 진정한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구구절절한 긴 말보다, 한 마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한다. 때로는 그 사람의 수 많은 행동보다, 단 한 가지의 표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낸다.

성경이 애매한 것 같지만, 신앙 생활이 안개 속을 걷는 듯 하지만, 그래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낭만적이고, 그래서 아름답지 아니한가?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없지만, 전체를 보면 보이듯,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35년의 발자취가 모여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의 그림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 뒤를 돌아 보았을 때 더욱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것으로 35년의 역사가 그려진 것 같이,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 가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숨바꼭질 중...

좌담: 우리 교회의 꿈과 전통

2011년 7월 24일 1시, 교회의 2층 회의실에 여덟 분의 교인들이 ‘우리교회의 꿈과 전통’에 관한 좌담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윤은상 집사의 사회로, 여덟 분의 교인들이 의견과 제안을 나누었으며, 이를 정유상 목사와의 신 영 집 사 두분이 녹취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회자: ‘믿음의 열매’를 위한 이 좌담회에 함께하여 주 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통하여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1)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꾸고 이루어 온 꿈과 전통을 돌아보고, (2) 15여년 후 (창립 50주년)의 우리교회(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 며, (3)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사역의 방 향을 구상하고, (4) 이를 어떻게 2세들과 나누고 전수할 수 있을까 등입니다. 우선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 과 전반적인 중장기 사역 방향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셨 으면 합니다.

박원서 권사: 교회 주보에서 2세를 중심으로한 교회 운 영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전환이라는 표현보다는, 한인 1세들은 지금과 같이 교 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2세들은 그들 나름으로 EM이 나 젊은 세대들의 예배를 추진하여 20년 후에는 영어권 교회로 분리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우리의 비 전이 될 듯 합니다. 2세를 위한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전환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한인이나 한 국어권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 모 두를 위한 사역에 계속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 체적인 방향이 중요하겠지요.

박원서 권사: 지금 현재 EM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 역이 자리를 잡고, 전담 교역자가 그 운영을 맡게 되면 5년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그 사역이 자리를 잡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한 교회의 급선무 는 재정적으로 전담 교역자를 초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건축도 굉장히 중요한 부

분이지요.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이 준비되면, 이 사역이 더욱 잘 이루어 질 것이라 봅니다.

안일민 권사: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 로는 전통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세 중 심으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한국말 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교회에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한국어를 잘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15-20 여년 후에 그들이 영어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서는 한국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요. 한 예로 근처에 있는 스페니쉬 교회는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중 언어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들의 모국어로 예배드립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 들이 한국말에도 능숙한 그런 교회의 전통을 유지했으 면 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도록 하면 도 움이 되리라는 의견이신가요?

안일민 권사: 주일학교는 성서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 어야 함으로,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좋겠지요. 이러한 교회의 전통 유지 를 위해서는, 전도사는 계속 한국어에 능한 분으로 초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글교육은 한국학교가 담당 해야 하는데, 한국학교에서조차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 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 한글 교육인데요. 아무래 도 각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요. 한국어는 습관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요즘은 어린이들의 한국어 교육에 한국 드라마의 효과가 크다고 하지요.

최인경 권사: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까”는 오랫동안 고민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해서는 영어만을 쓰게 되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대개 한국어를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언어를 떠나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더 먼저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한국학교를 다니고 한국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한국 관계 학과목을 택하게 되지요. 한국 음식,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쟁지요.

안일민 권사: 덧붙여서 말하면, 부모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영어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들은 한국어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이들에게 집에서는 한국어만을 사용하게 했지요.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하고요. 교회가 한국어 교육을 신앙 생활에 접목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 목사: 이 문제는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성서 교육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 교육이 먼저이고, 언어는 두 번째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의 성경공부를 한국어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숙 권사: 현재 주일학교는 교재가 영어이고, 예배도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주일학교에는 이중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는 부모님이 모두 양부모인 ‘입양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영어만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지요.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성경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자 권사: 최근에 캄보디아 교회의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며 감사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말(한문)로 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 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한글로 쓰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15-20여 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의 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숙 권사: 우리 교회를 향한 제 꿈은 “누구든지 오셔서 예배오신 그 날, 정말 사랑받고 환영받는 하루가 되도록 섬기는 교회”가 꿈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한 번을



좌담회 참석자

오더라도,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여행이나 출장 때 잠시 들렸을 때라도 미국에 있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며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지요. 모든 교인이 새신자부원이라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면,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보살피는 교회’도 되어야겠지요.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바나바 사역팀과 스테반 사역팀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용환 목사: 새로 참석하는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등록을 권고하고, 담임 목사를 만날 때까지 안내를 책임지는 ‘새신자 담당’이 있으면 좋겠지요. 버지니아에 있는 한 한국 교회에서는, 주차를 할 때부터 처음 온 사람 옆에 붙어서 여러 가지 안내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는데,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바나바 사역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경 권사: 새신자를 속회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편성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요.

사회자: 우리교회의 비전에 ‘Boston & Beyond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에 근거를 두면서 제안한 비전입니다. 우선 해외 선교에 대한 우리교회의 전통과 관련하여 생각을 나눠 주실까요?

이기환 권사: 오래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선교사 부부의 헌신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교회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사역계획의 일부로, 아직 전도 받지 못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지원하고, 이들 교회들이 선교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1980~81년), 인도네시아에서 2년 6개월 살던 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정도 간

후에, 다시 비포장 도로를 3시간 이상 운전해 가야 되는, 멀리 떨어진 오지에 12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젊은 한국 선교사 부부가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그 선교사 부부는 매달 \$200을 현지 교회에 보내주었는데, 이 돈으로 이곳의 원주민들을 신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한명 정도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교회가 지원해 온 멕시코의 선교지나 벨리즈 선교지는 여기 저기에서 도움을 받아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독자적으로 오지의 ‘선교지’를 정하여 ‘선교사’를 직접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미국 감리교단이 150년 이상 해외 선교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아닌 개체 (local) 교회에서도 그런 해외 선교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정유상 목사: 요즘은 많은 개체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도리어 적은 편이지요. 정규 신학공부를 하지 않고도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환 목사: ‘뉴욕 후러싱 제일교회’는 자체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 ‘워싱턴 한인교회’는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생 중 5~10%정도가 선교사로 사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개체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요. 이 기회 권사님의 꿈과 연결한다면, 그런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영목 장로: 얼마 전에 참석했던 뉴욕의 평강 교회가 정교회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각 목장들이 선교지를 선정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가정 교회 스타일의 속회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해외선교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인근 지역의 선교

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해서 'Beyond Boston'이라는 구호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한다. 로렌스나 앤도버 지역을 충실히 섬긴다면, 그것도 모든 세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회적으로 이런 사역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환 목사: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일회적으로 그치곤 합니다. 이러한 선교 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교회의 시스템이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선교 사역이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없어서는 안될 사역의 중심이기에 이러한 정신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해외 선교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전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데 최우선을 둡니다.

김지영 집사: 우리교회의 단기선교여행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다녀리 왔다가는 사람이 아닌, 아이들의 영혼 문제와 신앙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은퇴를 한 후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계획을 세우고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일학교 운영과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멕시코를 다녀온 후 그 곳의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철에 몰려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는 1년, 적어도 3-6개월 정도 좀 오랜 시간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곳을 선교지로 정하면 그 곳에 장기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겠지요.

신 영 집사: 여선교회의 일원으로 Photo Essay반을 시작하고 여러가지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꿈을 넓혀, 꾸준히 인근 지역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삶의 후반기인 50대를 맞으며 몸과 마음의 허탈함을 채울 수 있는 신앙의 꿈, 즉 삶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예를 들면 노인분들을 위한 직업 알선 등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주는 일이지요. 추수감사절에 Turkey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지요. 신문에 광고를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집사: 우리 교회의 돌봄 사역은 친교 중심의 돌봄에서 신앙적인 돌봄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교회를 참석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옷이 되어 돌본다는 자세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스테판 사역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약한 편입니다. 지속적인 지역 선교를 위해 예산도 세우고 담당자도 정할 수 있을까요?

김용환 목사: 목회자들에게 감독님이 이와 관련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지역 사회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회자: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좌담을 여러 교인들이 읽고, 미래의 우리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정리: 정유상 목사, 신 영 집사〉



좌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교인들

대담: 씨를 심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내 몸 같이 아끼고 내 집같이 보살피며 섬기어 오신 두분의 원로 교인과 함께 ‘가꾸어 오신 꿈과 전통’에 관한 대담을 마련하였습니다. ‘믿음의 열매’ 편집위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대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1)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꾸어 온 꿈과 전통을 돌아보고, (2) 15여년 후 (창립 50주년)의 우리교회 모습을 그려보며, (3)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사역의 방향을 구상하고, (4) 이를 어떻게 2세들과 나누고 전수할까 등이었습니다. (편집 위원)



박석만 장로

본 교회 창립교인
한결같은 헌신으로 섬겨음



서동항 권사

1980년 본 교회에 등록
봉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

장소: 본 교회 2층 소 회의실

일시: 2011년 10월 2일 (주일)

참석: 박석만 장로, 서동항 권사, 윤은상 집사, 박순혜 집사, 장은영 집사 (대담 요약)

역사란, 아무리 긴 역사라도 그 처음 한걸음을 내딛어 출발하는 것일 것이다. 북부 보스톤 교회가 내년에 창립 35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며, 맨 처음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박석만 장로님과 서동항 권사님을 모시고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젊은이들에게는 아마도 까마득한 옛 날..., 지금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이 평소에 그런데 관심을 두기라도 할까하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다. 하지만 교회 마당을 지날 때 화단에 한들 한들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누군가 봄에 씨를 뿌렸기때문에 그 곳에 피어난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씨를 심고 가꾸어 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이다.

대담을 마련한 윤은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연장자 분들 중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적인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시지만, 특별히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의 시작을 돌

아보고 또 20년, 30년 후의 미래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대담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사실 창립 35주년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2년 여에 걸친 가정교회와 성경공부 모임까지 합하면 37년이 되는 셈인데, 창립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기억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고 박장로님께 질문을 드렸다.

박장로님은 ‘1975년에 도미하여 1976년에 성요한 교회를 출석하다가 라영복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그 때는 주님을 믿기 전이었다’면서, 1977년 3월에 로렌스에 위치한 그리스도 UMC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의 경위를 말씀하셨다. “그 때 박준성 권사도 계셨고...” 하시며 그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6개월간의 이야기,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김인수 선생의 성경공부’가 마음에 와닿았더라는 이야기며, Methuen에서 어렵사리 지낸 옛

땀 흘리며 눈을 치운 주차장이 넓고 밝다



날을 회상하시다가 “자넨 언제 왔었나?” 하시며 서동황 권사님을 돌아보셨다. 서 권사님은 그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다며 “아마 80년도가 맞을겁니다. 저는 ‘79년에 여기로 이민 왔으니깐요…” 라고 답하셨다.

“1981년 9월에 앤도버의 이 교회로 옮겼지요?” 라는 윤 집사님의 질문으로, 우린 모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로 오게된 경위를 듣게 되었다. 교인들이 힘을 합해 우여곡절 끝에 은행 용자를 얻어 교회 건물을 사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박 장로님은 “믿음은 없었어도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덧붙이셨다. “이사 후 30여년 동안 가장 즐겁고 보람있었던 것으로 어떤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하는 윤 집사님의 질문에, 박 장로님은 “교회 여기 저기를 돌보느라 몸으로 때우는 일에, 만사 다 제쳐놓고 20-30명의 교인들이 함께 일할 때가 가장 보람있었고 즐거웠다.”고 회상하시며, “교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다른 분들에게 공을 돌리셨다. 한편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되었다’고… 또 ‘그 때는 거의 매일 교회로 출근했다’ 는 말씀에, 누군가 “그러다 가정불화가 나지는 않으셨어요?” 라고 해서 다 함께 웃었다.

당시에는 교회 난방이 되어있지 않아서 난로 (Wood Stove)에 장작을 때야 했다는데, 이야기 끝에 김원엽 장로님과 함께 장작을 때고 나르던 이야기며, 새벽 4시에 나와 불 지피던 이야기를 하셨다.

이번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교회 사랑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라고 서동황 권사님에게 질문을 드리자, “… 비를 맞아가며(80년대 초에 박장로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혼자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 조금씩 돕다가…” 하셨다. 그 대답에서는 ‘소박한 이웃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다. 한국에 있을 때 건축에 관계한 일이 있었다는 서 권사님은 “내 집의 일을 제쳐놓고 먼저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대답을 요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필자가 가끔 주 중에 교회에 들러보면, 서정섭 권사님과 서동황 권사님이 제 집처럼 교회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번 보았던 터다.

“여름엔 잔디 깎기, 겨울엔 눈 치우기, 그리고 수 많은 건물 수리 일을 20-30년씩 해오시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으셨다면?” 이라는 윤 집사님의 질문에, 서 권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다’고 정답(?)을 말씀하셨다. (질문을 미리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같은데 …) 그러자 박 장로님은 “서 권사에게 감동 받은 것은…, 서 권사가 세컨 스위트룸 끝내고 와서 (집에 가는 길에) 교회 눈을 치우고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구나 했어요” 라고 한 술 더 떠서 말씀하셨다.

“일이란 스스로 믿음이 나서 해야 하는데… ‘이 사람 좀 와야겠네’하면 말 없이 오는, 급할 때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며, ‘저 사람이 더 수고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자신(박 장로님)이 교인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대화를 들으며 ‘이건 정말 못말리는 사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지나갔다. 보기가 좋았다.

서 권사님은 ‘이 건물에 안 들어가 본 곳이 없다’며 그래서 정이 들었던다. “교회 건물 중 현재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는 윤집사님의 질문에 ‘우선 Roof ’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siding 얘기도 나오고 화장실과 주차장이 언급될 즈음, 그 때까지 조용히 옆에 계시던 여선교회장님(박순혜집사)이



넓은 뒷 마당은 내일의 사역 건물을 꿈꾼다.



오래된 도구들의 창고와 새로운 장비들의 shed

“부엌도 넣어야 되지요?” 라고 대답에 끼어드신다. ‘부엌 전반을 개조해야하지만, 무엇보다 개스가 새서 위험하고 오븐도 안되는 스토브를 새로 갈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셨다. 갑자기 간담회를 하고있는지 재단 관리이사회에 참석한 것인지 혼동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할까? 이것은 아마도, 오래 전부터 교회 어딘가에 이상이 생길때면 자연스럽게(?) 찾아가게되는 분이 이 분들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지금은 재단관리위원도 아니시라는데... 어쨌든 뭐든 잘 고치다보니 늘 바쁘신 두 분이다. (그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대답 중에 모장로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서 권사님께 창고 열쇠를 찾으셨다.) 결국엔 이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교회에 상주하는 서(鼠)씨 일가(?)에 대한 개선 요망 사항까지 다 나온 후에야 궤도 수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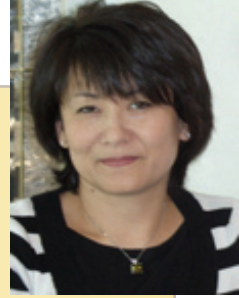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라는 윤 집사님의 질문에 대해, 서 권사님은 “한인 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시고, 박 장로님은 “교회가 이 지역 교회 협의회, 사회 단체 모임 등에 더 관심을 갖고 협조했으면 한다.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바램을 말씀하셨다.

“미래를 바라보며 신앙의 선배로서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고 질문을 드려봤다. 박 장로님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충고는 드릴 것이 없다’고 겸손해 하신다. (하지만 ‘변함없이 실천하는 믿음이 있질 않으셨는가? 어떤 교리보다 강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 권사님은 ‘교회 생활 외에도, 지역사회 봉사활동(PTA, Soup Kitchen 등)에 좀 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은 콘셉을 말씀 하셨다.

이 외에도 두 분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등, 많은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나 지면관계로 다 수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대답을 끝내면서, 참석자들은 오래 전에 씨를 심고 또 가꾸어 오신 교회의 여러분들께 다 함께 감사를 드렸다.

〈대담 요약: 장은영 집사〉





김지영 집사

북부 보스톤 교회를 향한 기도

메마른 광야에 기도의 불씨가 있었다.
불씨가 자라서 교회로 서고
교회가 자라서 불기둥이 되었다.
길 잃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당신은
불기둥이로소이다.

거센 바람에도 세찬 빗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어렵고 힘든 시험 중에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은
바위로소이다.

어떤 비난도, 오해도, 미움도, 시기도
넓고 큰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당신은
사랑의 용광로이로소이다.

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순간마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당신은
영원으로 피어나는 꽃
십자가로소이다.



나의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



심원세 권사

“신앙은 자아 발견에서 자아 초월에 이르는 길”이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은 신앙 생활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나에게도 내가 항상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오늘의 내 모습만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라면 나는 왜 더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처음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생활을 시작했다. 지금도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행복하고 꿈 많아야 할 그 시기에 나는 피할 바위를 찾고 있었다. 대전 변두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목사님은 좀 우직하지만 정이 많은 분이였다.

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 때는 정말 아무 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드러도 아깝지 않고 당장 선교라도 떠날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그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와 조금이라도 틀리면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새 교회건물은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단지 건너편 동산에 멋지게 세워졌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는 만큼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몇 년 후 직장에서 가까운 직장 조합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교회가 멀어서 집 근처로 출석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갈증이 심했던 시기이다. 직장에서 매일 점심시간 마다 일대일로 성경공부를 하기도 하고 신우회 예배/소그룹 모임 모두 참석하고, 또 교회 모든 예배, 성경공부, 사경회 닥치는 대로 참석하였다. 이제 알 만큼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 쯤 처가댁에 연이어 우환이 있었고 집사람도 함께 교회에 매달렸다. 집사람은 막내 딸 다혜를 들쳐업고 두 어린아이들만 집에 두고 나와 함께 새벽예배를 다녔고, 일주일이면 닳새는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다.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만 들으면 만사형통되고 아이들도 다 잘 자랄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도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기면, 두 아이들이 그 당시 엄마 아빠가 새벽에 나가고 돌만 남아 있을 때 많이 무서웠다고 기억하곤 한다. 우리부부야 좋았을 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안좋은 기억으로 남

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4~5년을 지냈을 때 미국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 오기전 한 지인의 소개로 보스톤의 한 교회를 소개받아 조그만 한 이민 교회에서 이민(?)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삶의 환경에 큰 변화 속에 교회생활은 여전히 나와 내 가정에 한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느려지고 좁아진 삶의 패턴은 견디기가 힘들었다. 또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찾아 온 곳이 북부보스톤 감리교회이다. 새로운 다이나믹은 내 삶과 가정에 힘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정생활과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 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시기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참 짧은 것 같아 긴장이 되었다. 아이들은 부모 생각 만큼 자라는 것 같다.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내 나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바라기는 아이들이 나보다 진일보 성숙할 수 있도록 내 욕망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제나처럼 나는 또 변화할 것이고 성숙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나의 지난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바람이 있다면, 첫째로 교회가 폭 넓은 신앙의 담론이 자유롭게 소통 될 수 있는 곳 이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때에 따라, 만남에 따라 모든 신앙은 각양각색이 아니겠는가? 신앙적, 신학적으로 많은 자극이 있는 곳이기를 바란다.

둘째, 일방적으로 짝지워주는 모임 말고, 관심에 따라 소그룹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교회가 재미있어야 하고 그 일에 열정을 부을 수 있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면 재미 없다. 셋째로 교회비전이나 나눔이나 행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도록 노력하는 곳이기를 바란다. 또한 아플때 신약/구약이 필요했다면 힘든 때는 ‘절’약도 필요하다.

청장년부 시절의 추억



안일민 권사

본 교회 35주년을 맞아 옛날을 회상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뻐던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1982년 여름 청장년부에서 1박 2일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Maine의 York Beach. 교회의 (15인 승) Van으로 청장년부원들, 정창규 내외와 안일민 내외 그리고 이승기, 안병학, 안일준, 안미선, 이귀옥, 장인숙, 김은순, 등 당시 미혼의 교인들이 함께 떠났지요. 사전에 답사하지 않고 가보니, 캠핑장소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짐을 풀고 텐트를 쳤을 때는 모두들 지치고 시장했지요.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모닥불 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운 곳에 있던 미국 분들한테 조용히 하라는 충고도 받았지요.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었지요. 하루 종일 해변과 놀이터에서 즐겁게 지내고 Van을 다시 타고 돌아오는 중에, 엔진 부분에 연기가 나고 물이 새는 것이었어요. 물어 물어 인근 가게를 찾아 공구를 빌려 겨우 고쳤지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다시 한번 엔진 부근에서 스팀이 나와, 차를 세울 수 밖에 없었지요. 다른 부분의 호스가 찢어진 것을 찾아내어, 짜르고 다시 연결하

여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때이고, 영어도 좀 부족하고 지역도 잘 몰라서, 한국에서의 습관으로 살다보니 모두가 다 고생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절이었지요.

본 교회의 옛 청장년부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던 그때가 절절하게 느껴지고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당시의 청장년 회원들이 지금은 모두 중년을 훨씬 지나고 있지요. 그때의 총각 처녀 분들은 결혼하여 장성한 자녀들이 있고, 바쁜 비즈니스를 하며 지금도 교회에서 핵심 멤버로 각종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립 35주년에 맞는 오늘의 우리교회 아름다운 모습은 이러한 창립기의 어려움을 넘기면서 자라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듯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자세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도 우리교회가 35년간 착실하게 자라온 것은, 늘 기도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지켜온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조정하 교우

백기 <白旗>

하나 둘 세상 것을 내려 놓으니
비로서 당신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목말라 하며 바라봤던 것들이
당신 안에서 보니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떠나 살고 싶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처음으로 백기를 흔들며
어린이처럼 당신을 찾습니다

인자하신 당신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비어진 가슴에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는군요

더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당신과 함께 하는 이 기쁨

천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가을 소묘 <素描>

한 밤에 일어나면 나직히 낙엽 지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속에서 한 잎 두 잎 낙엽 쌓이는 소리는 애처롭고 정답게 들린다. 문득 내가 살아 있음을 감사해본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이 눈물겹다. 나직히 불어오는 바람결에 구르는 가랑잎 소리. 천지는 고요하다 옷깃을 여미며 단정한 마음을 가지려 한다.

한낮의 푸르름과 눈부심을 나는 무척 좋아한다. 그러나 한밤의 고요속에서 소근거리는 낙엽들의 대화는 나의 가슴을 부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마음을 쓰셨구나. 새삼스럽게 감탄해 본다. 낙엽도 거의 스러지고 있는 10월 말 11월을 앞에 두고 마음을 비우려고 한다. 그렇게하면 11월은 텅 빈 충만으로 다가설 것이다. 세상 것에 마음 매이지 않고 담담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1월은 여행을 꿈꾸게 될 것이다. 소지품 담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여행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비어버린 세상을 빈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미 풀벌레는 자취를 감췄고 낙엽도 사라지고 찬 바람만 윙윙 불 것이다. 땅은 더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는 찬 하늘을 바라보며 찬 바람을 맞게 될 것이다.

11월엔 누구든지 용서해야 하는 계절이다. 아픈 기억은 바람결에 훨훨 날려보내야 한다. 미워했던 사람도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보아야 한다. 어차피 삶의 쳇바퀴속에서 우리도 한번쯤은 누군가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니까.

11월엔 새로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너무 서툴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며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사랑해야할 때 사랑하지 못한다. 이제 가슴안에 따뜻한 사랑 하나 곱게 키워 길러보자.

당신은 들리는가? 가랑잎 지는 저 소리가. 사람 목숨도 저렇게 낙엽을 닮아 결국 허망하게 저버린다는 것을. 그대 가만히, 가만히 귀기울여 보라. 그대 가슴속에서 들리는 또 다른 작은 외침을,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는 그 소리는 그대 영혼이 들려주는 소리. 11월엔 어느 달보다도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고요한 밤 오랫동안 내 속에 있는 나와 교제한다. 내가 진정한 나를 만날 때 나는 눈물이 핑 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가장 가벼이 여기며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가슴 가득 따스하게 다가온다. 그 따스하고 여린 것들이 내 가슴 안에 있었다니, 바쁜 생각속에서 밀려나 버려져 있던 가슴 안의 간직된 것들이 소중한게 와 닿는다.

11월은 하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 어차피 우리의 본향은 하늘, 그 푸른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한다. 땅도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그 길을 따라 가고 계절도 하늘로 통하고 있지 않는가. 11월엔 마음을 맑혀야 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슴속에 폭 안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침묵의 계절이 지나면 다시 시끄러워 질테니까. 다시 삶의 쳇바퀴 속에서 진정한 나와 만나기 힘들테니까.

<조정하 교우>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마태복음 4:1-11)



김원엽 장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유혹을 물리치신 인간 예수” 라고 고쳐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뇌의 기도라던지, 사랑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짓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탁하는 효성이 넘치는 모습들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크든 작든 예수님께서 받으시던 유혹에 유사한 유혹들을 수없이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일각이 세속화를 넘어서 타락한 지경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 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 가늘게라도 흐르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마음에서 위로 받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 보기도 하였습니다.

재물욕, 명예욕 등이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에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통하여 유혹을 받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물리치신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는데 바로 그 일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써 이루셨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열심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부러워들 하겠지만 더디더라도 바르게 믿는 믿음이야말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일상생활에서 건전한 분별력으로 떳떳하게 진실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녀들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요!

기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김 성 목사, 라영복 목사과 함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박재영 장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알게되고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운의 큰 꿈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과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고국을 떠나 미국에 유학온지가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긴 세월을 사는 동안 기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저의 생애에 가장 고맙고 소중한 일은 유학와서 외롭고 힘들 때 대학원 기숙사 같은 방에 살던 외국인 학생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많은 교인들의 사랑과 지도를 받으며 교회생활을 하면서 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박사학위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또 고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힘들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여호와와 함께 나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시편 23:1-3)

학위공부에, 교편생활에 또는 연구생활과 대인관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잘 모를 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해 전 막힌 혈관을 대체하기 위해 큰 심장 수술을 받게되어 걱정과 두려움에 싸여 있을때, 애송하던 시편 구절이 떠오르면서 순식간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시편 23:4)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잘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홀로 걸어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저를 등에 업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는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큰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은 저에게 평안과 확신, 감격과 기쁨을 주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자녀가 되어 걸어온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주님은 성경에 담긴 약속의 말씀을 저의 생애에서 다 이루어 주시며 저를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극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미니카 (치과) 선교

지난 몇년간 국내 지역 선교에 참여하다 보니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4년간 해외 치과선교를 갔던 남편이 마침 도미니카 치과선교 준비를 하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부터 일주간, 텡스치과대학에서 주최하여 31명이 참여한 이 선교에 치과의사가 11명, 치과대학원생이 14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몇 백명의 환자를 보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모두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했는데, 참가한 의사중에 개업하고 계신 분들이, 그들 병원에서 공급하셨습니다. 환자들에게 나눠줄 선물백도 잔뜩 준비하여서 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민의 80%가 아주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수도 ‘산토 도밍고스’에 갔는데, 마침 이곳 치과대학이 방학이어서, 그 건물을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반에 숙소에서 떠나 치과대학에 와 보니, 벌써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가지고 간 도구와 재료들을 정리하고 환자 맞을 준비를 하였고, 저는 밖에서 등록을 도왔습니다.

현지의 젊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와서 건강차트 쓰는 것과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가지 못해서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환자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었는데, 번호를 부를 때에 가짜번호를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등록후 환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충치 예방을 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에서 치과의사들은 실틈없이 계속 환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곳 치과대학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안좋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은 충치가 심했고, 또 상한 영구치를 뽑아 버렸기 때문에 평생 이가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그곳 실정이었습니다. 밖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점심 때에 현지의 의사가 치즈가 들어간 식빵 1/4 조각과 오렌지 주스를 나눠 주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티켓을 한 장씩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과선교에 참여한 텡스 대학교 선교팀



치료받은 도미니카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는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채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140여명의 환자를 보았지만,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다음날에 다시 와야 했습니다.

첫 이틀은 우리 선교팀에게 점심 때 물이 한 병씩 공급되었는데, 물이 떨어졌는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마실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그야말로 물을 한방울도 마시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환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열대 지방의 무더운 날씨를 확실하게 느낄수 있었고, 오후마다 소낙비가 왔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안에서 나이든 치과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참 고달프다. 그런데 환자들이 치료후에 이제는 안 아프다고 크게 미소짓는 것을 볼 때에 피곤이 싹 풀리고, 내일 아침 다시 환자보러 가고 싶어진다”고. 창밖을 내다보니 만원버스가 문을 닫지도 못한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져간 도구를 소독하고 모두 마무리를 하며 짐을 싸고 있는데, 12살 난 환자가 영구치를 빼게 되었습니다. 신영목 장로님이 그 환자 앞니를 둘 다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과대학원생들이 둘러서서 신장로님을 보조하였습니다. 후에 물어보니, 12살 난 아이가 평생 이가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 이 미국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나이 어린 치과대학원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것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극히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주민들



멕시코 선교 여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제각각 몫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만나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혼자가 아닌 세상임을, '우리'로 사는 세상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복된 삶일 게다. 내가 마음속에서 뱉어 놓은 숨을 내가 마시고 내가 창자 깊은 속에서 뱉어놓은 숨을 내가 마시며 우리가 되어 호흡하는 일. 너와 내가 서로를 숨 쉬고 날숨과 들숨을 통해 우리로 호흡하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지 않은가. 삶의 여정에서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찾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감사마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난 여름 멕시코 '인디오 원주민 마을'이 있는 까말루(Camalú)에 일주일 다녀오게 되었다. Botton에서 출발 Philadelphia를 경유하여 San Diego 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멕시코 국경선을 넘어 4시간여 달려서야 까말루에 도착할 수 있었다. 까말루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푸른 바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파도는 가까운 이웃 나라에 사는 이들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겠다 싶었다. 멕시코 날씨는 여느 무더운 나라의 도시와는 사뭇 다른 따가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멕시코 까말루에서의 며칠이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인디오(멕시코 원주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선교사(엄승호)님 부부가 계신다. 자신들의 남은 삶을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며 살다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말이 그렇지만, 어찌 그 일이 쉬운 일이겠는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번 선교여행에 함께 간 14명의 우리 일행은 선교사님 내외분을 따라 '깜포'라는 몹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인디오 마을'을 찾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의 표정과 눈망울은 슬픈 희망이었다.

검은 피부에 눈이 깊고 눈망울이 맑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나는 슬픔을 느끼고 말았다. 가난이 딱정어리처럼 앉은 그 아이들을 까말루의 '깜포' 마을에서 만나고 돌아와 나는 얼마나 안쓰러움에 마음 아파했는지 모른다.



얼굴에는 검정 솟을 칠해놓은 것처럼 얼룩이 저 있고 오래도록 감지 않아 빗질도 어려울 딱 진 머릿결 그리고 얼룩덜룩 자국이 남은 옷을 걸친 아이들. 그뿐일까, 신발도 없이 맨발로 있는 아이들과 여기저기 구멍 뚫린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며 참으로 부끄러웠다. 어머니의 손길이라고는 스치지 않은 듯 보이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쳐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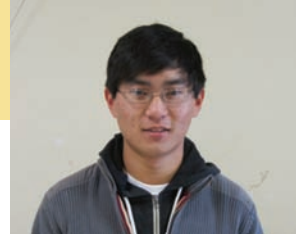
그렇게 흠먼지 폴폴 날리는 멕시코의 ‘인디오 원주민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고 우리는 모두 멕시코 국경선을 넘어 미국 땅에 도착 San Diego 공항을 출발하여 Washington을 경유하고 Boston 공항에 도착하였다. 며칠 동안에 만나고 느꼈던 경험을 통해 가슴에 일렁거리는 숨을 잠재우기 힘들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출렁거렸던 체험인 만큼 잠깐동안의 감정의 출렁임이 아니길 내심 기도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으며 또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깊은 생각에 머물렀다.

이 모든 생각이 감정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은

조금 더 큰마음의 눈으로 세상과 마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동할 수 있어야 남의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아픔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래야 가슴이 열린다는 생각이다. 내 가슴이 열려야 다른 사람의 가슴도 만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여유)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부터 시작되기에 사람이든, 사랑이든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멕시코 까말루(Camalú)에서 만난 ‘인디오들의 아버지’ 같은 Pablo(엄승호)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란 귀한 말씀이 이 내 가슴에 와 박혔다. 삶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일게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열심과 진실함으로 사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산다면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 욕심의 자리에 여유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삶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까닭이다. 이렇듯 삶과 사랑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권회근 학생

필라델피아 선교 여행

켄싱턴으로 향하기 1 주일 전, 우리는 몇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켄싱턴에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향해 갈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선교 여행동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키즈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선교팀은 40여명의 어린이들과 운동장에 모여,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아이들 자신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키즈 게임”의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와 그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것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했던 다른 활동은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머셋 거리로 갔습니다. 그 곳은 마약을 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는 구제 활동의 일환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복음 성가를 불렀으며,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거기서는 “키즈 게임”을 했던 아이들과는 달리 많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크신

관심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은 자기 삶의 많은 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놀았던 운동장보다 그곳에서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두 장소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일하게 필요한 곳이었지만 저는 운동장보다 서머셋 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숨기려고 하는 반면, 어른들은 그들이 절망에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인 된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엔도버에 있는 사람들도 켄싱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키즈 게임’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서머셋 코너에 있던 사람들처럼 진실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 같습니다.

선교 여행이 끝난 후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서 상실을 경험한 자들을 찾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Mission Trip to Philadelphia

안예은 학생



As I reflect on my experience at the mission trip, I realized that I've changed when I left ICM. I'm so thankful that I've got the chance to see how God works in so many ways that I've never expected.

When our team went to Vacation Bible School, I was really struggling trying to talk to the small group. Even though we prepared for that day, it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I imagined. I felt like we couldn't get them to focus. I realized that all they really wanted was attention. While I was helping Pastor Vega's wife, I didn't realize the little things that I could make such an impact. During that time, I thought I wasn't doing anything important but just cutting fruits and collecting plates. As time flew by, I realized that through the little things you are still representing Christ.

On the third day when we went to VBS, I really got to connect with the little kids in our small group. When we were playing, I got to talk to a little boy named Leon. When I tried talking to him, all he said was "I don't know." At that time it was really easy for me to give up. I was really surprised when Leon wanted to talk to me one on one. When he told me his story I realized that he was carrying a lot of hatred and anger.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but go talk to the Pastors. After I finished talking to Leon, Ernest told me that I cannot save him but only God can. It became so real to me as I reflected on my one on one with Leon.

At first when our team went to a corner known as Hell Corner to do street evangelism, I was really scared of the people. I tried to remember what Ernest said about

breaking our worldly lens but I didn't really break them until I got to talk to the people. Once we started to listen to their stories I realized how broken this world is without God. When we were doing outreach I really felt that God was there. No matter how hard I try to explain how I felt that moment, it won't be the same as being there and reliving that moment. I knew that God was there because another mission's team was there. It was so amazing to see how God shows himself through missions.

The fourth day was when I accepted Christ into my life. It might seem strange that I accepted Christ into my life when we went site seeing. I accepted Christ when I was having a talk with Nooree and he asked me a question: Do you believe that this stuff, the gospel, is real? When he asked me that question I shook my head. I shook my head because when we were doing street evangelism the gospel became real to me personally. It is not possible to say that God isn't real when you see Him working through missions. Also, when I was talking to my friend, we reflected on our time during the mission trip. She reminded me how I really am representing Christ, even though I don't know that I am. From that moment when we were sharing our struggles, I realized the only person who can save me from my sins is Jesus Christ.

Pastor Vega said that the mission's trip would be a waste if you didn't leave changed. As I reflect on what he said, it is definitely true. It is not possible to say that God isn't real when he has shown himself to us in many ways.



호산나 찬양 사역 (Joy Ministry)

호산나 회원 여러분께 (I)

2011년 하반기 사역인 Sundance 1호가 오늘 출항하였습니다. 새로 두 분 Yvonne 할머니와 Doris Peacock 할머니께서 저희 모임 고정 멤버로 들어 오셨습니다. 특히 Doris 할머니는 저희 모임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시는 장본인으로 악명(?) 높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이 부드러운 미소를 띄시고 우리에게 합세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앞에서는 늘 상냥하면서, 뒤에서는 흉을 본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분의 두가지 마음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심리도 있지만, 상냥하게 인사하고 힘들 때 기도해 드리면, 고마워하는 그분의 맘을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요. 그 분 자체가 보람이요, 기쁨이요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역자님들!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지쳐도 중단치 않고 또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아닐까요? 더욱 용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주님의 손에 드러질 때, 주님이 그분을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귀옥 권사님께 배운 body worship 너무 은혜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몸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느끼는 순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불로 인도하시고 반석같은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호산나 사역팀 여러분께 (II)

시작하신 분도 또 이루시는 분도 다 주님이십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던 이 the recovery center의 방문... 주님의 열두제자처럼 열두명의 용사들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들쭉 날쭉하여 몇 명이 올지 모른다는 그곳 직원들의 조언이었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 다섯명도 넘는 왁자지껄 대부대였습니다.

우리 열둘은 어느새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려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들인지 누가 우리인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웃으며, 대화하며, 전혀 낯설지가 않은 그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아들이요, 딸이요, 동생이요, 친구였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보았고, 그들의 정결함과 그들의 해맑은 미소와 아름다운 영혼을 보았습니다. 아 로렌스여, 우리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으로 가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출발~~~

주차장에서 물건을 내리고 차를 주차하고 건물로 나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용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손발





이 척척 맞았습니다. 우리를 맞는 그곳의 식구들의 정겨운 인사들, 좁은 어색하지만, 또 쑥스러워하는 가운데서도 식당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친구들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웠는지요.

준비~~~

식당팀 그리고 찬양준비팀이 나뉘어서, 설치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팀들 척척 알아서 준비하는 미소띤 얼굴들, 그리고 따스한 인사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서 사진을 다 찍으셨을 거예요.

개시~~~

식사후 주종욱 권사님의 멋진 마술쇼에 열광적인 박수와 웃음 미소가 온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옆 방에서 비데오 영화, 찬양 그리고 목사님 말씀, 커다란 눈망울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은 눈물들, 그리고 환한 얼굴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만지소서, 만지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우리들의 무언의 기도였습니다.

빙고~~~

빙고가 이렇게 좋을까? BINGO노래를 불러가며, 진행되는 빙고에는 희비가 갈렸습니다. 모두 선물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들! 다음에는 선물을 더 푸짐하게 저 아픈 가슴들에 안겨주고 싶다는 생각!

종료~~~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다 함께 손잡고 우리 용사들은 기도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참석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오는 우리의 심령은 감사로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차서 나왔습니다.

특히 새로 합세하신 우리 김연아자매님, 그리고 일본 친구 이꾸요(?)께 감사드립니다. 빙고상품에다 깨끗하게 마련한 옷들을 한 상자 가득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계속 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또 멋장이 안일민 권사님께서 오셔서, 말없이 척척 준비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해주셨어요! 찬양 선교팀에 큰 뺨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외 우리의 헌신적인 용사님들... 이귀옥권사님, 신영집사님, 최혜은집사님, 주종욱권사님, 손영희권사님, 권오언선생님, 김용환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혼자서 30분동안 길을 찾아 해매시다 빙고시간에 맞추어서 극적으로 숨을 헐떡이며 나타나신 우리 장인숙 권사님~~~

모두 모두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군숙 권사

여선교회 수련회: 삶의 충전, 믿음의 충전

나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레 ‘선물(Free Gift)’이 생각 난다. 화장품 가게엘 가면 조그만 Size로 만든 Sample용 화장품을 Free로 주는데 이게 여행 갈 때는 정말 요긴하게 쓰여진다.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선물(Free gift)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가게 되었고, 다녀온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값지고 소중한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왔다는 느낌이 든다.

제일 바쁜 토요일 가게 문을 닫아걸고 참석하신 집사님. 올망졸망한 아이 셋을 어쩔사리 떼어 놓고 온 젊은 엄마. 그렇게들 모인 30여 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각자의 일상에서 벗어나 이 수련회 장소에 모인 걸까? 아마도 삶에 쫓겨 잇고 살아온 본래의 ‘나’를 찾고 싶고, 회원들 서로서로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모이지 않았나 싶다

금요일 오후, 행사 준비 관계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삶이 버거워 지치고 거칠어진 마음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 배꼽 빠질뻔한 여러 Game으로 마음문의 빗장을 열게 했고 그리고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를 시작하였다. 정유상 목사님의 “기억하라”(신명기 8:1-10)라는 말씀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먹이시고 지켜 주셨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

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오늘 내게 있는 만나, 즉 은혜를 묵상하게 한 설교 말씀이었다.

목사님 말씀 후 소그룹별로 나누어 숙제로 가지고 온 “내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그래프로 그려온 것을 보여가면서, 서로 가슴으로 들어주고 또 터놓고 얘기하는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과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나의 믿음과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를 되짚어보는 귀하고 뜻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그 심각한 숙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 삶의 그래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그려진 초라한 내 믿음의 곡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울긋은 직선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자고 있는 내 영을 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알았다.

늦은 밤(9시 이후)에는 불꽃놀이와 모닥불가의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터지는 불꽃도 처음이었고 캄캄한 상공에서 함께 Harmony를 이루어 꽃으로 피어 내릴 때 그때의 장관은 뭐라 표현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리고 모닥불 가에서의 나눔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은 두고두고 못 잊을 추억거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잠자리 패션쇼’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거리였다. 젊은 회원들의 원색적인 속옷의상과 즉석 비닐 잠옷, 남편 속옷을 이용한 패션. 그룹별로 저마다의 특특 튀는 Idea로 만들어 낸 특별한 Show. 그래서 회원들의 안면 근육운동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드디어 취침시간, 침낭을 펴고 누웠건만 두런두런 못다한 이야기꽃이 그리고 아직도 웃음기 가득한 얼굴들에 잠은 고작 두세 시간으로 만족해야 했다.

토요일 아침 6시 새벽 경건의 시간이다. 간단한 말씀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고... 새날 새롭게 펼쳐 보이실 은혜를 고대하며 호수 산책에 나섰다. 물안개 피어 오르는 호숫가를 따라 걸으며, 만나는 모든 것들과 정답게 인사도 하고, 수줍게 피어 있는 풀꽃들과 입맞춤하며 걸었다. 싱그러운 숲 속의 향기에 내 온몸을 내어 주어 깊은 포옹도 해가며 손가락 가락마다 꽃반지 만들어 낀 우리는 모두가 소녀들이 되었다.

아침 식사 후엔 카약 타기, 자전거 타기 또는 개인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카약이란 것이 보기에 일엽편주와 같아 보여 위험할 것 같아 약간 겁도 났지만, 타고 보니 내 몸과 일치감이 느껴져 자유롭게 탈 수가 있었고 그 순간만은 은빛 물결위를 부유하는 한마리의 작은새가 되어 오롯이 혼자만의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

호수에서 돌아온 후 다 함께 빙 둘러앉아 폐회에배를 드렸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로 각자가 느낀 소감, 감정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깊이 사귀는 공동체가 되길 모두가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1박 2일의 잇을 수 없는 여선교회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러한 모임의 필요성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었다.

은혜는 뜻밖에 찾아온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은혜에 굶주려 있으나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경험은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일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사랑에 주려 살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산다. 그렇게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삶에 있어 재발견은 처음 발견보다 웬지 모르게 더 심금을 울리는 데가 있다. 자격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뜻밖의 선물을 받고 온 지금 마음은 이득 본 장사를 한 것 같아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이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심한 데까지 신경 쓰시고 준비해주신 준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사랑과 박수를 보내며...





윤선희 집사

주일 성경 공부: 성경속의 여성들

지난 9월 초부터 ‘성경 속의 여성들’ 이란 제목으로 8주 과정의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에 모여서 시작한 성경공부는 각자의 질문을 찬찬히 답해 주시는 정유상 목사님의 지도로, 여유롭고 차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하신 13분들과 서로 진솔한 소감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어린 모세의 곁을 지키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필요한 일 앞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출애굽 기적의 사건 앞에서는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는 여성으로, 소박하지만 물러섬 없는 자세를 지닌 진정 매사에 깊은 맛을 보는 삶을 배웠습니다.

드보라는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혼돈을 질서로 만들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등잔을 지키는 여인같이 항상 깨어 있어서 남을 격려하고, 강건하라고 가르치는 용맹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공부하면서는, 아들이 죽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룻이 깨끗한 사랑으로 가족관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는 룻과 나오미의 사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많이 어려웠으나 서로의 앞 날을 격려해주고, 시어머니가 주선하는 룻과 보아스의 연애담은 모두에게 미소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그래도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가

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교훈도 마음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나 (성경공부반원) 모두가 부러워했던 뛰어난 미모로 왕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리와 동기를 바로 알고 민족과 함께 하는 의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단호한 결심을 통해,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깊은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에스더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중에 예수님을 수태하게 되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전해 듣고 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여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참고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수님이 처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십자가 아래의 고통을 입에 수건을 물고서 애써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성화를 보면서 더 간절하였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보낸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나는 결혼후 칠년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아름다운 노인이었습니다. 기도와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지

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자신을 절제하며,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안나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흔히있는 자매간의 조그만 갈등 속에서, 마르다의 손님대접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도 진실된 사랑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꼭 빠져서 전념할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 보았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청종의 자세로 듣는 모습을 공부하였습니다. 한문을 잘 아

시는 교우께서 청종이란 그냥 듣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잘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다시 풀이해 주셔서, 더욱 바로알고 순종하는 모습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힘쓰는 행위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루디아는 진정 모두를 섬기고 위로해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속에서도 언제나 변치않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드러우면서 용기가 넘치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며, 차분히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살아온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진정 큰 가르침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마치며, 우리들의 영혼에 그들의 모습을 담은 작은 등불을 하나씩 밝혀가고 싶습니다.

8주에 걸친 여성 교인들의 주일 아침 성경 공부반
뒷줄: 윤선희, 김성경 (전도사), 최현주, 이숙희, 강순선, 신 영
앞줄: 정유상 목사 (성경공부 강사) 최인경, 박순혜, 장인숙
(김경순, 김계남, 심성옥, 강시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교인이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예배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예배준비는 강대상 십자가 아래에 있는 큰 성경책에서 주일 말씀을 열어 드림으로서 시작합니다.

교회절기에 따라 강대상의 색깔도 보라색, 흰색, 초록색, 자주색으로 바뀝니다. 강림절(대강절)에는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크리스마스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주현절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초록색 혹은 흰색을, 사순절과 성주간에는 회개를 상징하는 자주색을, 부활절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을, 성령강림절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십자가 아래, 성경책의 책갈피, 설교대 그리고 목사님 가운의 칼라도 함께 바뀝니다. 물론 성만찬과 세례식의 준비도 예배부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48시간 연속기도는 교회마다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지만, 우리교회와 같이 본당에서 교인들이 돌아가며 드리는 연속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오고 있는 예배의 순서와 내용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라면, 우리들의 마음과 귀 그리고 눈을 열 수 있도록 예배 형식의 변화도 시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특히 젊은층과 유학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후에 “오늘 예배는 별로야,”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오늘 예배는 은혜로웠어”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기도,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나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성가대 좌석의 위치를 조정하고 예배의 순서와 형식을 변경할 때 몇 분의 교우님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예배부팀이 새로운 예배순서를 통해 보다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하여야 할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예배 순서와 그 준비도 중요하지만, 예배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입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10-20분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모습도,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도 모두 아름다운 예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5년 전통의 임마누엘 성가대



정대훈 집사

북부 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임마누엘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4년전 미국 보스톤에 입성하여 바로 우리 북부 보스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가대는 김기영 작곡가께서 지휘를 하셨는데, 주일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은 제게 은혜의 찬송으로 들렸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이지은 지휘자께서 잘 어우러진 화음을 만드시어 교인들께서도 듣기 좋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몇 차례 주변 교회에 초청되어 찬양을 드린 적도 있으며, 그 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곤하여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기본적인 실력은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여서 교회를 다녀도 특별한 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짧은 경험과 부족한 음악 실력으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성가대에 들어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년을 바라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이지은 지휘자가 새로 오셨는데, 당시 성가대장을 하시던 권사님이 손을 잡아 성가대에 참여하도록 추천해 주셔서, 꿈에만 그리던 성가대원이 되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부족한 저는 총무직을 맡아서 대원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 가 대 기 도 문

온 땅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은 믿는 자의 기도요, 간증이며, 신앙임을 고백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부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케 하는 귀한 영의 양식임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뜻과 정성을 다한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임마누엘성가대

지금의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수 년전 부터 이루고 담아놓은 기반 위에 지금의 ‘임마누엘 성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5년을 이어온 전통은 보스톤의 어떤 교회에서도 이루지 못한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중년층 이하의 대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임마누엘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찬양의 제사를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황금어장은 우리의 그림

이재숙 권사

옛날 옛날에 황금물고기 한 마리가 연못에 살았답니다. 그 물고기는 자신의 빛나는 비늘이 너무 이뻐 모든 물고기들이 다 자신을 바라 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 모두가 좋아 할거야.” 그는 물고기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황금물고기 옆에 물고기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참 이쁘는데 왜 날 모두 피하는 것일까?” 황금물고기는 외로웠고 하루하루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새 물고기가 그 연못에 이사왔어요. 새 물고기는 황금물고기를 보자 감탄을 하며 이렇게 말했

어요. “황금물고기야, 황금물고기야. 너 너무 이쁘다. 네 비늘 하나만 나에게 줄래?” 자기에게 다가와 말을 부치는 새 물고기가 너무 고마워 황금물고기는 얼른 자신의 비늘을 하나 떼어 주었어요. 그러자 이걸 본 다른 물고기들이 황금물고기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나 줘. 나도. 나도.” 황금물고기는 신이 나서 자신의 비늘을 하나씩 다.. 떼어 주었어요. 그러곤 자신은 그만 평범한 물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황금물고기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물고기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자신이 더 행복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날 밤 그 연못 옆을 지나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어요. 연못 속을 들여다 보니 그 속에는 황금비늘을 가진 수 많은 물고기들이 신나게 헤엄치고 있었답니다.

교회, 교회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얘기이다. 우리는 황금비늘을 가져서 신나게 노는데 밖에선 우리의 빛을 보고 다가 온다. 황금어장의 얘기는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고뭇줄도 철봉놀이도 잘 못하는 난. 늘 활기 찬 아이들이 부러웠다. 그렇게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고 싶었는데. 어찌 할 줄을 몰랐다.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용기가 없었다. 거절 당할까봐. 겁이 많아서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난 선생님들이 다루기가 쉬운 아이였을 것이다. 늘 정돈이 되어있었으니까. 요즘도 난 교회 가기 전 토요일 밤에 가방을 썬다. 성경책, 기도노트, 말씀CD, 방문자 들께 드릴 CD 책, 헌금. 도시락만 없다. 그러곤 교회에 갈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환영합니다



잠시 한국에 나가 계셨던 김재홍 교수님 가족이 돌아오셨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 (South Carolina, Cambridge, Virginia)에서
사건 경험과 비교해서, 전문 기관이지만, 한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이 이곳에 정착하신 가족의 모습이
힘 행복해 보이십니다.
함께 걸어가는 민중의 길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길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가족> 김재홍, 이은진, 김하리, 하영
<주소> 311 Lowell St. #1124 (Winsor Green)
Andover, MA 01810
<전화> (419) 978-470-0658

그러나 학교와 교회. 다른 것이 있다. 학교는 경쟁이다. 잘 해야한다. 좋은 성적이 날 평가한다.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여야 한다. 공식대로 해야한다. 잘하는 아이들이 칭찬듣는다. 울면 책피하다. 교회는 다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오기만 해도 고맙다. 공짜다. 환영한다. 아픈 사람은 더 귀하다. 울어도 된다. 약한 자가 먼저다. 꼴찌가 일등 된다. 학교보다 교회는 얼마나 더 좋은가? 재미있다. 편하다. 반갑다. 친구가 많다. 외롭지 않다. 나눌 줄도 안다. 받아서 신난다. 예배가 수업보다 훨씬. 이만큼 더 좋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가진 황금비늘을 나눌게요. 그냥 가지세요. 받아 주셔서 고맙워요. 우리 재미있게 놀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환영받는다. 아무나 올 수 있다. 필립 안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이리 말했다. “교회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란,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 그토록 크므로 겸손한 자들이 와서 높임을 받는 곳. 그토록 작으므로 높은 자들이 낮고 낮아져야 들어 올 수 있는 곳. 교회란 실로 이와 같다.”

황금어장. 우리교회의 그림이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전, ... 선교를 위하여

루신디 볼드윈 (Lucindy B. Baldwin) 이라는 여선교회 회원이 오하이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28년 전 (1884년), 당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한국여성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복음전파를 위하여 정성을 담은 지정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감리교단은 오하이오 연회 여선교회의 '메리 스크랜톤' (Mary Scranton)을 한국에 첫 여선교사로 파송하여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남부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여성들이 전도부인 (Bible Women) 훈련을 받고, 한국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여성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는 목표로 한국여성들을 훈련하여 전도부인들로 양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금식하고, '산나물 뜯기, 미역과 조개 따기, 닭 키위 달걀 팔기, 옷 수선과 빨래해주기' 등으로 선교비를 모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 여성의 복음 전파를 위한 헌금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한국에 나가, 당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한국 여성들을 '전도 부인'들로 훈련시켜 헌신하게 했던, 미국의 '전도부인'들에게, 우리는 큰 은혜와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아시아 전도 부인 사역'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속에서도 믿음의 여성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가족과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용기있게 함께 걸어 가야겠지요.

이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저변에는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돌보고 '음식바자'와 '야드세일'등을 통해 선교 기금과 활동자금을 마련하여 교회 살림에 보태고, 선교와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고,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도 부인 사역'에도 동참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신과 봉사가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교회 여선교회는 회원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교회 봉사에 아낌없이 바치며 헌신하는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특히 교회 초창기부터 30여년간 오로지 굳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선교회를 지켜 오신 여러 권사님들의 모습은 우리교회의 자랑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서 여선교회의 앞날이 기대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를 향한 제 작은 소망은, 우리 여선교회가 회원간의 친교와 성경공부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주방시설의 개선과 쓰레기 재활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1년에 표어를 "사랑으로 함께 하는 여선교회"로 정하고 여러가지 활동과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참여하여 주신 모든 여선교회 회원님들, 목사님, 우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선교 - NE 여선교회의 행사 (전국 수련회, 가을 찬양제, 선교기금 걷기) 참가

 캄보디아 여름성경학교 점심 식사 운영비 지원, 멕시코 단기 선교 비용 지원

친교 - 창립기념 오찬, 부활절 오찬, 추수감사절 오찬, 성탄절 오찬, NE 목회자 모임, 여선교회 친교 모임

봉사 - 한인회 체육회 점심, 여름 성경학교 점심, 목회자 친교 모임 식사



NE 여선교회 선교기금 걷기 참가



부역에서 친교를 준비하는 회원들

경조 - 카드 보내기 (회원 생일, 경조사), 심방 및 기도

교육 - 여름 수련회, 선교학교 참가, 한인 여선교회 전국 지도자 훈련 참가, Recipe 정리, 도서 구입

환경 미화 - 화단 가꾸기, 사진 전시, 주방관리

기금 마련 - 야드 세일 (교인들의 Donation 물품, 음식, Craft), 고기 세일, 김밥 세일



맛있고 예쁜 송편 만들기



선교지원을 위한 뜨개질 모임

해외 선교 용품 마련 - '뜨개질반' 모임

사회 사역 - Lazarus House (Homeless Shelter) 물품 보조, Bread & Rose (Soup-Kitchen) 물품 보조

취미 모임 - 송편 만들기 강습, Photo 에세이반



여선교회의 뿌리와 꿈

기독교 신앙을 양육하고 전도의 모체가 되어 온 여선교회, 그 뿌리를 내리게 하고 꿈을 키운 겨자씨들을 살펴봅니다.

첫번째 겨자씨는 1884년 오하이오주 어느 여선교회원이 한국을 위하여 드린 선교헌금, \$88이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의 어두운 절망속의 생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복음전파를 위해서 이 머나먼 미국의 한 여성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헌금은 미국 여선교회로 하여금 한국 여성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첫 여선교사로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녀의 아들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덕수궁담을 지나다가 한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를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첫 환자가 되었고, 그 아이가 첫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첩들, 질병에 시달리고 가정에서 버림 받은 갈 곳 없는 여인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고,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태평양을 배로 건너, 조선의 여성들을 향해서 오직 복음의 열정 하나를 안고 찾아온 여선교사들... 전혀 맞지 않는 음식들 된장, 고추장, 마늘냄새, 젓국들... 언어의 불소통, 낯선 풍습들, 괴로운 식생활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서양귀신이라는 명칭아래 쏟아지는 적개심들이 그들 앞을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조선여성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진 그들이 발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여선교회는 이화학당, 배재학당 뿐 아니라 한국에 70여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한국여성들은 복음에 눈을 뜨고 교육을 받고, 심지어 미국에 유학하여 조선여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여성 지도자로 세워

졌습니다. 그들의 땀과 희생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겨자씨는 2003년, 미국 이민교회의 한인여성들을 위한 ‘전국연합회’를 시작하고자 드러진 \$300의 헌금이었습니다. 김혜선 목사님이십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김혜선 목사님은 1980년대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 한 후,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민한국교회에서 부목으로 사역을 하던 목사님께서서는 한국여성들이 교회에서 그들의 잠재력과 능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한국 여성들을 가르치자. 훈련하자. 더 이상 부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맘껏 펴게 해 주자”고 결심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여선교국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한인 여성들을 위한 지도자 훈련을 1991년부터 시작 하셨습니다.

2003년 드디어 목사님의 작은 겨자씨 \$300불을 시점으로 한인 여선교회는 ‘전국연합회’란 이름으로 독립된 한인여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선교회 회원들이 선교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여선교회와 협력하며, 독립적으로 한국여성들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아시안으로서의 부르심을 사용하여서, 아시아로 향한 선교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를 다니며, 그 곳의 여성지도자들을 훈련하며, 문맹퇴치, 위생교육, 기술교육, 청소년 교육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내의 한국여성들을 위한 지도자 훈련세미나, 한국어 자료개발, UN의 정책과 세계적 이슈를 공부하는 UN 세미나, 미국내에서의 정치 및 사회 이슈들과 입법을 공부하는 DC세미나, 지도자 훈련을 위한 코사지 리

더샵센터, 구제와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세미나등, 한인 여성으로 이러한 지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인을 위한 선교학교가 따로 개설되고, 감리교 2세 여성들을 위한 훈련이 실시되어서 1세와 2세를 함께 연합하여 선교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체 교회에 국한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넓고, 크게, 높이 열어주는 그 일을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작은 300불의 헌금이 이제 연지출 12만불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겨자씨는 크리스틴 전이라는 한 젊은 한인 여성입니다. 브라운대학 4학년 때, 한 친구로부터 ‘크리스찬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힘을 잃고 타협하는 한 종교로 기독교를 규정짓는 친구와의 토론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노예의 인권을 옹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화하여, 아프리카 노예를 이용하여 그들의 기업의 기득권을 챙기는 예를 드는 친구를 향해서 자신이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노예의 인권을 위해서 일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일주일 후에 친구가 말했답니다. “지금 현대에도 노예제도가 있는 것을 아느냐” 고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이일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아무말도 못하고, 심지어 인신매매는 커녕 사회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머리를 짙 부딪히는 도전이 온 것입니다. 바로 며칠 후, 신문에서 한인 마사지팔러라는 성 윤락가에 팔려와 억압되어 있던 자기 나이 또래의 한국여성들의 기사를 읽고서는 밤새 갈등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나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도 하는데, 나와 같은 나이의 저 애들은 저 윤락가에서 감옥과 같은 사창가에서 몸도 망치고 아무 희망없이 절망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것도 길 하나 건너서 그들이 바로 내 곁에 있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모

른 채, 이렇게 안일하게만 살았구나, 내가 저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연민은 계속 되었으나, 그녀의 자신에 대한 한계와 낙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찬송이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제가 여기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저는 아직 어리고 세상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무나 크고 저는 너무나 연약한 한 아이입니다.’

새벽 동이 틀 즈음,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Polaris Project의 첫 시초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10년간 현대 노예제도인 인신매매제도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하에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의 구출이 시작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DC경찰과 변호사들과 파트너로 일을 하고, 희생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안통과 등 많은 일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한 연약한 대학생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행하는 어떤 섬김, 친절, 위로, 헌신... 그것이 어떻게 자랄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마더 테레사가 말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 그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 씨 속에 숨어있는 큰 나무를 바라봅니다.

〈정리: 김지영 집사〉



노인사역은 왜 필요한가?

머릿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십계명 중 5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12)” 입니다. 공경 (honor or respect)이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공손히 섬기는 것을 말하며,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의, 식, 주를 포함한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정신 건강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무 제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의 핵가족 제도(two generation family or nuclear family)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정부나 사회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를 정부가 대행하고 있으며, 우리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혜택은 받고 있으나 정신적인 평안을 위한 혜택은 언어와 풍습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그 중 일부분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상록회 (노인사역) 입니다.

노인들의 외로움과 상록회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이 늙어가게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 집안이 자녀들로 북적이며 행복했던 가정은 어느덧 옛 시절로 흘러갑니다. 자녀들은 다 자라 저희들 갈 데로 가고 옛날의 부모였던 우리 노인들은 빈 집만 지키는 Empty nester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부양할 가족도 없어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어야 할 책임도 없는데다 대화할 상대도 없어 고독과 소외감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더욱이 동년배들이 하나씩 타계함에

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독감으로 인생이란 무겁고 슬픈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노인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960년대 말 미국 이민법 개정 후 낯설고 물설고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 나라에 건너온 우리 이민 1세대들은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키려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오늘의 미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구부정한 허리와 절룩거리는 다리는 지난날 생활전선에서 승리한 영예스러운 부상이요, 얼굴의 주름살은 생활 전선에서 길러 낸 공로로 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할 수 없다는 좌절감,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타계할 때의 고독감, 건강과 제한된 생활로 인한 불안, 이런 것들이 노인들의 정신적 퇴화를 유발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내에 상록회(노인사역회)를 설립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정신적 건강의 도움과 노인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욕을 심어주고 정신적 퇴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해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고 지금의 삶은 영생을 위한 준비과정이고 하늘나라에서의 큰 공연을 위한 예행연습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삶의 기쁨을 더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년배의 노인들끼리 모여 딸 사위 자랑, 아들 며느리 자랑, 손자 손녀들의 재롱이야기, 그리고 사회문제 경험 등을 토의하며 서로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통하여 우의를 다지고 친구들을 사귀므로써 노인들에게 삶의 기쁨을 더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Massachusetts 주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각 City나 Town의 Senior Center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 노인들에게는 언어와 풍습의 장애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Boston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상록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상록회는 문호를 개방하여 종파나 종교에 관계없이 환영하는데 현재 등록된 회원 약 50여 명 중 80%가 우리 교인이고 20% 정도가 타교인입니다.

현재 우리 상록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program은 첫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월 1회 Dr. Grace Kim의 Vitamin D 영양주사와 가을철의 Flu shot이 계획되어 있으며 요가 및 율동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즐거운 시간은 역시 점심시간입니다. 노인사역부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이중문화 선교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점심을 먹습니다. 이 맛있는 점심을 들면서 담소하다 보면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넷째, 점심시간이 지나면 오락시간인데 Bingo game, 노래부르기, 한국 KBS 노래자랑 영상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더욱 흥미로운 program을 개발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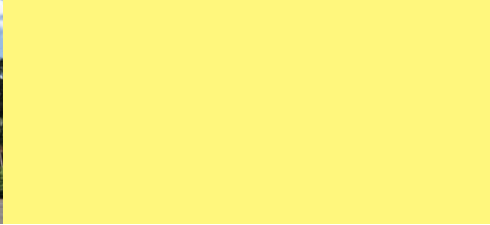
또한,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야외예배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녹음 짙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오색찬란한 물감으로 장식한 단풍나무들과 하루를 지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쉬을 얻고 젊어지는 듯합니다.

맺는 말

우리 상록회 회원들은 모임 때마다 일찍이 뜻이 있어서 상록회를 설립하시어 외로운 노인들을 불러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맛있는 점심을 먹여주시며, 친교와 오락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록회원 대부분은 지난 날 장로, 권사, 집사 혹은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겨 온 분들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 더 보람 있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해도 심신이 말을 듣지 않으며 우리 노인들의 육체와 정신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달라져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눈이 침침해서 운전이 어렵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힘들어 집니다.

끝으로 우리 상록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제직 여러분, 그리고 회원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요가 및 율동체조 인도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해 영양 및 예방주사를 위해 애써주신 손길과 모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 주방에서 수고하신 노인사역부장님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장년부의 역할

김동원 집사

인간의 역사속에서 가장 떼어 놓을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루, 이틀, 사흘, ... 계속해서 숫자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숫자를 꼽는다면 당연 '3'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숫자 '3'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활속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부·성자·성령, 하늘·땅·바다, 머리·몸·꼬리, 등등 숫자'3'이 삶의 중요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3가지 보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과 게임이나 가위·바위·보 할 때도 삼세판이라는 말을 줄곧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저전거 또한 세 발 자전거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서 저의 인생 역시 3등분을 해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 슬하에서 결혼하기 전까지가 처음 3분의 1. 결혼해서 내 자신이 부모가 되면서 아이를 키울때가 중간 3분의 1. 아이들이 커

서 장가나 시집가서 내 자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마지막 3분의 1. 저는 지금 중간 3분의 1에서 삶을 살고 있고,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청록회원(청장년부원)분 들 또한 비슷한 삶을 사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인생의 중간 3분의 1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어느 한 순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겠지만, 중간 3분의 1이야말로 더욱 가치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3분의 1과 마지막 3분의 1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청록회원 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꿈이 있는 미래를 심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윗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중간 역할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의 꿈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발 자전거의 앞 바퀴처럼 중간에서 중심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citing Opportunities for the English Ministry

박태훈 교우



Being a member of NBKUMC since the age of 14, I have realized God is working to shape the church and its members over the course of time. The church has come a long way in this development plan, learning along the journey what works and what wouldn't. It has evolved in different areas including the youth group, the main service, and recently the EM group. The church has experienced its share of ups and downs including a changing base of members and staff. The ongoing changes and growing wisdom until now has led to the formation of a vision for the EM group.

The vision for the EM group is that it will consist of a core of members who can organize, plan, and implement opportunities to reach out. This would be at the same time as hosting bible study and discussion opportunities. EM's mission will be to become dedicated healers in many ways to people beyond the scope of church. The group would not put too much emphasis on how to grow in size or worry about the political noise around it. When the group has a strong outreach program, the members will fo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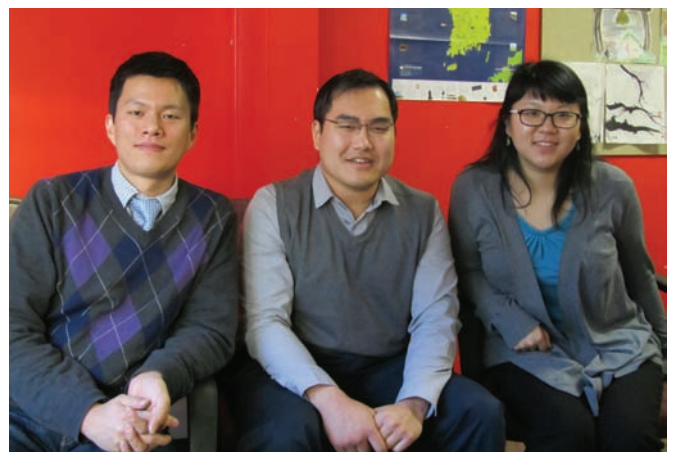
As a church, we are essentially called to be spiritual doctors in a world that is made of spiritually sick and dying people. EM can and should follow that model. If we emphasize increasing church attendance and size over reaching out to others in ways that are life changing, our vision may not come to fruition. In essence we must practice going beyond our comfort zone and challenge tradition. In this day in age, we are called to be dynamic and challenge the practices of tradition. Although tradition has its place, too much of it creates a hardened wall and that is exactly the goal of the enemy.

We already have tools at our disposal to begin the process. Most of us already spend a significant portion if not most of our time before a computer or equivalent during the week outside of work. If we can dedicate some of that time to reaching out online and research-

ing places where we can physically go to reach out to people, we would have a strong start to fulfilling God's vision for the church and for EM.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to reach out. Each person has a unique set of needs God has assigned to that person. Each person has a unique set of gifts from God. The EM calling from God is to use the God given gifts to reach out to people who have different needs. Some people can use help in finding the career they need. Some people need someone to talk to. Some people have marital problems and need emotional, spiritual, and intellectual support. Some people need a community. Some people need practical help with practical situations. Some people may meet their wife or husband. This is not yet an exhaustive list of opportunities. We may find that these exciting opportunities will create and inspire new ones. We would measure success by the number of people we have served as opposed to the size or the number in th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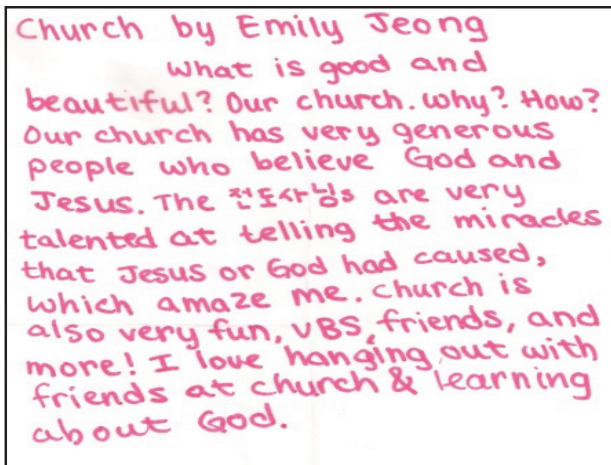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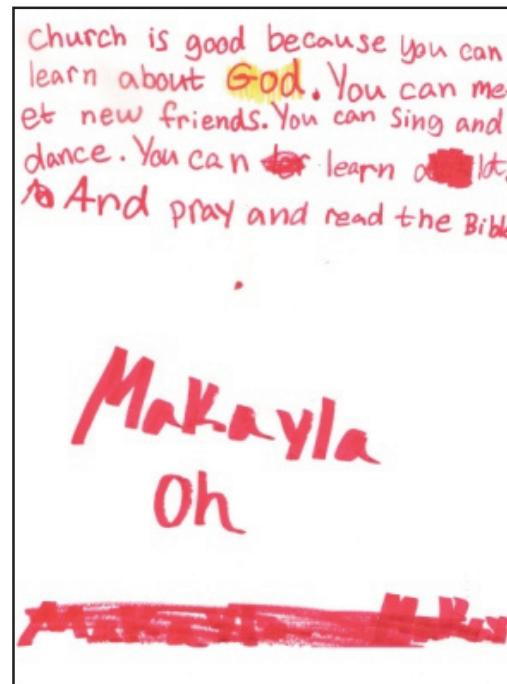
In summary, I would venture to say that a little love goes a long way. Members and visitors may come and go but God's message to reflect the love He has given us remains unchanged. There is no better way to show the love of Christ than to reach out in ways that are healing and problem solving to other people.





어린이들은 우리의 꿈

어린이들이 보고, 배우며, 느끼는 우리교회의 모습 속에 그들의 꿈과 우리의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귀엽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교회를 따스하고 보람있게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그림과 글을 모았습니다.





최하영(7살)



조민영(8살)



Olivia Li



김아린(8살)



박현선(7살)





조태섭 전도사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세계적인 건강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개 김치의 기원을 삼국시대로 보고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긴 겨울동안 사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발효식품입니다. 이제는 김치의 맛과 유익한 영양성분들이 외국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 건강 식품이기도 합니다.

태권도는 고구려 시대부터 전승, 발전되어온 전통 무예로써, 2000년에 열렸던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격을 목적으로 한 공격 기술보다는 우리 민족의 공동 정서인 ‘예’를 바탕으로, 정정 당당한 대련과 품세 수련을 통해 수련자의 심신 단련을 위해 계승되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무예입니다.

이 밖에 한글, 한복, 국악, 한옥 등 눈에 보이는 문화 유산들과 예절, 효성, 민족애, 역사 등과 같은 정서적 유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유산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자긍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비록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흐르는 시간의 강 속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역사와 정서와 공감대가 잘 유지, 보존, 계승, 발전되어 온 것을 전

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와 전통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보이지 않게 연결해주는 강력한 끈이며,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은 그 의미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훌륭하고, 가치있는 문화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5주년을 기념하는 저희 북부 보스톤 교회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북부 보스톤 한인 감리교회에는 어떠한 전통과 문화들이 있는가? 이 문화와 전통이 언어와 세대간의 차이가 너무도 뚜렷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 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문화와 전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야 할 귀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잠시 뒤를 돌아보고, 더 발전적인 도약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고,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전통과 문화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해 보고, 이들을 어떻게 보존하며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과 문화도 잘 보존되지

않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저희 교회에 적어도 두가지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세대 간의 단절과 약한 유대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간의 단절 문제나, 유대감 결핍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와 전통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세대간에 존재하는 정서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까지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옷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한복을 볼 때에 “곱다”라고 느끼는 순간의 저의 정서와 제 아버지의 정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시간과 경험의 차이를 뛰어 넘어서 동일한, 적어도 유사한 정서 공유를 통해 아버지와 저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처럼 공유되는 정서들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게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저를 부르실 때에 “어이, 내 새끼”라고 부르시는게 어떠한 의미인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느끼고, 언젠가는 제가 저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를 부르시던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 까지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내면에서 잔잔하게 퍼지는 이 울림이 아버지와 저를 연결해 주는 소중한 끈이어서 비록 지금은 아버지와 제가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를 긴밀하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신앙적 문화와 전통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전통들이 우리 모두를 하나의 줄로 묶듯이 서로를 묶어주고, 연결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의 올바른 신앙의 문화와 전통은 우리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 갈 수 있도록 많은 유익한 도움들을 줄 것입니다. 옛날 농경 사회 중심이었던 우리 나라에는 농번기에 마을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품앗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을 통해서 농업에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서

로의 수확을 도와주다보니 마을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서로 잘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잘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되면 떡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던 문화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공동체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은 이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기존의 구성원들에게는 새로운 구성원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문화와 전통이 그 공동체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즐겁고,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면, 교회 내의 신앙적 문화와 전통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 생활에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유익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면, 예배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문화이고 전통이라면, 3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어야 합니다. 3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는 신앙의 전통과 문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흉내내고 모방하다가 지쳐 버리겠지요. 어떻게 우리의 것을 만들고, 유지하고, 계승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배울 것인가는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중요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과거의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손상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35년 후에는 저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감사해 하고, 즐거워 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교회를 위해 땀을 흘려 수고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모든 북부 보스톤 성도님들께 미리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열과 공지를 심어 주는 한국학교

문득 한국 사람인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 왜 이 곳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 문화와 뿌리를 더 확실히, 절실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이세들은 완벽한 영어구사와 명문대의 학벌과 전문직업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의 용모 때문에 백인과 구분되어 여러 면에서 미묘한 순간들을 체험합니다. 이때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라면 우리의 이세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처절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코리언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학교입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살 때보다 더 진지하게 온 정성을 들여 뿌리 교육에 힘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인

류의 미래이며 다민족 국가인 미국 땅에서 확실한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류사회에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류 열풍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신명나는 일입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한국어가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식어로 채택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만큼 한국어가 발전하면 사람들간에 문화적인 공감대 및 문화 교류가 저절로 형성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말이 통하는 세상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말과 열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차세대 교육에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역 방향과 계획

비전과 중장기 계획의 배경

Vision이란 꿈을 말한다. 최선을 다해야만 성취가 가능한, 높은 꿈이다. 즉 “먼 후일, 우리가 이루어 도달하기 원하는 상태와 모습”을 뜻한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는 Vision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정의와 사랑’이 담겨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에서와 같이, Vision은 우리를 이어갈 미래의 세대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임무는 ‘예비하는’ 것이다.

장기 사역 방향

2007년 “Revitalize each other to feed Boston and beyond”를 우리 교회의 20년 장기 비전으로 채택하고, “새 생명을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성경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근거한 우리교회의 비전으로, 네 단계로 추진하여 왔다. (1) Bring it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 (2) Take and bless it (말씀과 수련으로 성숙하여), (3) Break it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4) Be given to the world (세상을 위해 쓰임 받자).

비전 제안서와 함께 설정한 20년 장기 사역 방향은: (1) 1세 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 (2) 1세와 2세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1.5세대, (3) 세상과 함께 하는 교회, (4) 가정사역 강화, (5)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성서 교육 및 영성 훈련, (6) 연합된 교회 (Connectional System with UMC) 등이었다.

제1차 5개년 (2007-2011년) 사역 계획

장기 비전과 사역 방향의 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제1차 5개년 계획은: (a) 기능적 조직을 위한 부서업무 단순

화, (b) 전 교인의 은사 중심적 사역 활성화, (c) 각 구성 그룹 Ownership 활성화, (d)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 양성, (e) 중점적 전도 프로그램 개발, (f) 중장기 선교 전략 수립 및 실행, (g) 소그룹 활동 활성화 그리고 (h) 가정사역 등 이었다. 이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팀들과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차세대 교육팀은 (1) 각 대상별 (주일학교, Youth, EM, 청장년, 노인회) 전문가 그룹 양성, (2) 각 그룹에 적합한 예배 형식 개발, (3) 각 그룹별 Activity 프로그램 개발, (4) EM 그룹을 위한 성경공부 프로그램 개발, (5) 학부모 지원그룹 활성화 그리고 (6) 교육시설 개조 및 확충을 추진한다.

조직/시설팀은 (1) 교회 운영 부서를 효율적인 사역별 조직으로 조정, (2) 지속적인 전문성을 고려한 Sub Committee 구성, (3) 교인 수 증가를 대비한 건물/시설 Master Plan 마련 그리고 (4)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사용규례 작성과 교육훈련에 노력한다. 예배/친교팀은 (1) 참여가 강조된 예배형식 개선, (2) 1부/2부 예배성격을 차별화, (3) 1부 예배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담팀 구성, (4) 음악이 전체 예배 분위기를 유도, (5) 단기 및 장기적인 이중언어 예배 방안 개발 그리고 (6) 예배와는 별도로 현재 교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기도그룹 조정에 힘쓴다. 또한 전도/선교팀은 (1) 관례화된 선교/전도정책을 개념적인 면, 사업적인 면에서 점검하고 (2) Outreaching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제2차 5개년 (2012-16년) 사역 계획 (논의 중)

임원회의 결의 (2011년 10월)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담임 목사와 함께 제1차 5개년 사역 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5개년 사역계획의 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립하기로 합의할 경우, 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논의 중에 있다.

속회 운영 지침

목적과 기능

속회 (또는 목장)는 일반적으로 돌봄, 제자삼기, 하나되기, 전도하기 등의 목적과 기능을 갖는다. 즉 우리는 속회를 통하여 (1)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돕는다 (2) 말씀 묵상, 실천, 격려, 나누기 등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다 (3) 교회의 각종 행사 및 교인들 간의 일들을 홍보하고, 속원들이 능동적으로 사역 활동에 참여하게 서로 권고하고 기도로 돕는다 (4) 예수님이 오신 목적,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18장 11절),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친교하고 전도한다.

돌봄사역의 전통과 속회

우리교회는, (1) 기독교의 기본 - 구원/전도/사랑 (2) 감리교단의 전통 - 참여를 통한 사회 사역 (3) 뉴잉글랜드 연회의 목적 - 국제 선교와 교회간의 협력 (“Beyond the Wall” and “Side by Side”)에 기반을 두면서 한인 공동체로서의 ‘돌봄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전통으로 가꾸어 왔다.

- 이민 한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서로 돌봄
- 역경 속에 처하여 있는 지역 한인들을 돌봄
- 신앙생활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을 돌봄
- 친교를 통하여 교인들간에 서로 배우며 돌봄
- 가정교회의 추진을 통한 개인적 돌봄과 전도



목자 (속장) 회의 (2011)



야외 속회 (2010)



자녀와 함께 모인 목장 (2011)



겨울 밤의 따스한 속회 모임 (2010)



주일 예배에서 헌금 찬송하는 목장



주일 예배에서 헌금 찬송하는 목장

지난 30여년 동안의 속회 운영 경험을 토대로 가정교회의 장점을 접목해서 작성한
2012년도의 속회 사역 목표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사역 목표	근거와 세부 지침
기본 정신	성경적인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사도행전 2:46-47).
교회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속회의 역할	작은 교회	속회는 작은 개체 교회이고 북부보스톤 교회는 속회의 연합.
속장의 역할	평신도 목회자	속원을 돌보는 목회자 (연락, 상담, 심방, 영적 지도).
속원의 분담	사역 분담	속원들은 속회 내의 부속장, 찬양, 전도, 선교, 재정, 교사, 친교 담당.
속회의 중점	새가족 초청, 정착과 선교	민지 않는 사람 초청, 교회 안 또는 밖의 선교. 속회 헌금은 교회로 헌금하고 속회와 교회 선교 목적에 사용.
속회 내용	삶의 기쁨과 슬픔,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 체험	전도 대상자가 참석할 때는 모든 정기 순서를 생략하고 전도 대상자가 편하도록 진행.
제자 훈련	보고 배우는 자연스런 제자화	속장의 헌신을 보고 속원들이 본이 되는 분(role model) 을 발견하여 제자 되게 함.
교인 양육	단계별 체계적인 삶 공부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하고 자신의 소명 발견	속장 및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삶 공부에 참여하고 속원들이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속회 분가	속장의 지도력이 미칠 수 있는 관계로 구성하고 수시로 분가	평균 참석자가 6가정 (또는 12명) 이상이 될 때 분속.
속회 진행	인도는 속장, 성경 공부는 교사	속원중에서 교사를 선정하되 맡을 사람이 없을 경우 속장이 교사 겸임.
모임 횟수와 장소	매주 (토요일 또는 주말)	지정된 날에 매주 모이되 어려울 경우 월 1회 이상 모이며 속원들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모임.



교회 헌장

초안의 작성과 채택

우리 교회의 헌장은 “연합 감리교회의 장정 (The Book of Discipline of UMC) 에 명시된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평신도 지침서 (Guidelines for Leading your Congregation) 의 제6편 부록 - “한인 연합 감리교회 전국 연합회의 평신도 신령상 직제 운영세칙 가이드라인”과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북부연합회의 신령직에 관한 헌장 (규약)” 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에 초안을 마련하고 1988년 1월 17일 교인총회에서 인준, 채택되었으며, 그 후 1998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다. (참조: 교인 핸드북, 2010)

교회의 조직과 교인의 의무

현행 헌장에 규정된 우리교회의 구성 부서는 교회의 각종 사역활동에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조직의 기본으로, 교역자, 교인총회, 임원회, 대표와 서기, 위원회, 이사회, 사업부서, 교회기관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인에는 정교인과 예비교인이 있으며,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정교인은 유아세례를 받고 16세가 되어 입교식을 거친 사람으로 본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나, 성인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고백을 통하여 본 교회에 입교한 사람, 그리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본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며, 예비교인은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과 입교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모든 교인은 (1) 성찬예식에 참례하고, (2) 세례와 입교를 거쳐 입교인이 되며, (3) 임원을 선거하고 피선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모든 교인이 다음과 같

은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역활동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
- (2)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 (3) 주일예배와 기타 은혜 받는 모임에 참석한다.
- (4) 교회의 헌장과 규칙을 지킨다.
- (5)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두 차례의 개정

제1차 개정 (1998년 12월 13일) 에서는, (1) 한국학교를 교회 부서에서 교회 기관으로 변경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2) 집사, 권사, 장로의 선임과 임기 규정을 조정하고, (3) 전도부와 선교부를 개별 부서로 분리하고, (4) 성가대, 소망회, 상록회를 공식적인 부서로 명시하는 등, 교회 조직을 개편하였다. 제2차 개정 (2002년 12월 15일) 에서는 (1) 권사와 장로의 연령 규정을 조정하고, (2) 기획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제3차 개정 (논의 중)

헌장은, 교인 모두, 특히 부서를 담당하는 제직들이 교회 업무의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심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심의과정에 있는 제3차 개정의 초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신앙생활과 사역활동의 기본 지침을 명시
- (2) 상징적 조항들을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
- (3) 신설 또는 재편성한 부서들을 공식적으로 포함
- (4) 관련 조항간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조정
- (5) 연합감리교회 운영규정과의 일관성을 확인
- (6) 문장의 오류를 교정, 등

창립 기념 행사 보고

주기 (담임목사)	기념행사	현장	건물/시설	믿음의 열매	장기 계획
교회 창립 (1977, 라영복)	창립 감리 교단 가입	-	교회 이전	-	-
제 5주년 (1982, 최홍석)	기념 특별 예배 부흥회, 음악회	-	구입 (1981) 시설 정비	-	-
제 10주년 (1987, 김 성)	기념 특별 예배 부흥회, 음악회 한국 문화의 밤	초안 작성 채택(1988)		-	-
제 15주년 (1992, 김 성)	기념 특별 예배 부흥회, 음악회	-	교육관 증축	창간호	-
제 20주년 (1997, 전중현)	기념 특별 예배 부흥회, 음악회	1차 개정		제 2호	-
제 25주년 (2002, 전중현)	기념 특별 예배 부흥회, 음악회	2차 개정	본당 개조 Multi-media	제 3호	-
제 30주년 (2007, 홍석환)	기념 특별 예배 부흥회, 음악회	-	파킹장 확장	제 4호	비전 제안 1차 5년 계획
제 35주년 (2012, 김용환)	기념 특별 예배 부흥회, 음악회	3차 개정		제 5호	2차 5년 계획 (논의 중)

*선교 사역 (해외, 타주, 인근교회, 연회 지원, 등)은 주기 (또는 중장기 계획) 없이 관련 부서 또는 교인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음. 중장기 선교 방향의 수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교회 역사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꾸어온 “꿈과 전통”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사역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념이 되는 사진과 함께 회고하여 보겠습니다.

메리백 밸리 교민들의 친교 모임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가정교회로 변모한 2년여의 기간이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둔 라영복 목사님이 감리교단에 예배 장소를 청원하고, 그 결실로 1977년 3월 20일 로렌스 강변에 위치한 Christ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인 54명과 아동 23명이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두 주 후인 4월 3일 지역사회에 우리교회의 창립을 공표하는 예배를 드렸으며, 교회 이름을 ‘한인감리교회’로 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5년 전 30주년 기념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여 찍은 석조 건물의 로렌스 교회와 본당의 모습입니다.

설립되어 ‘여선교회’가 첫 교회 부서로 조직되는 등 기초를 닦았으나, 본 교회와의 스케줄 조화 문제, 문화적인 갈등 등의 어려움으로 창립 6개월 후 이전한 곳이 Methuen이었습니다.



Methuen downtown 가까이의 Spiket 강변에 위치한 Faith Church 건물에서 4년간의 활기찬 예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남 선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세례와 신령직 임명으로 교회 기반이 확충되고, 젊은 교인들이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UMC) 교단에 정식 가입한 것도 이 때이고, 교회의 명칭을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로 바꾸어 등록한 것도 이 시절이었습니다. 성전 구입을 위한 모금을 하였으며, 선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민들이 친교하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나누던 모습들이 사진에 보입니다. 초창기의 교인 중에 30여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당시의 추억과 전통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1976-77년:

라영복 목사 - 앤도버/로렌스/메추언 지역의 교민들 가정에서 성경공부



1977년 3월 20일:

로렌스의 Christ UMC에서 첫 예배를 드림 (장년 54명, 어린이 23명)



1977년 4월 3일: 창립예배

우리 교회의 설립은 지역사회의 큰 뉴스가 되었고, 두가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인 사회가 I-495 주변으로 확대되던 당시에 우리 교민의 신앙생활의 터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교회의 분열이 아닌 자생 교회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에서 4번째 한인 교회로



오랫동안 바라던 성전을 Andover에 구입하여 입당예배를 드린 것은 81년 9월이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최초의 자체 건물을 소유한 한인 교회가 되었으며, 우리 교회 본당 구조의 신앙적 의미인 ‘평등’과 ‘빛’의 전통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큰 뉴스가 되었고, 새로운 성장과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82년 10월 2일 (Korean Culture Day)

새로운 성전에 온 다음 주 라영복 목사님이 교편을 잡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시고, 한국으로부터 오신 최홍석 목사님이 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최 목사님의 영적인 설교를 통하여 교회의 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한국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우리의 모습을 알리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5년간 시무하시던 최홍석 목사님이 귀국하시면서 제 3대 김 성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창립 10주년과 15 주년을 맞으면서 대 내외로 큰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소망회가 조직되고, 교회 헌장을 채택하였으며, 영어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2층 교육관을 증축하여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활동을 배가시켰으며, 한인회와 Andover Town에 임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습니다. 등록 교인 300명에 예배 교인 250명이 되는 명실공히 뉴잉글랜드 중심 교회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김 성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의 교회 담임을 맡아 떠나시면서, 후임 목회자 파송 문제로 교단과 어려운 관계를 경험하며 6개월의 과도기를 거친 후 제 4대 전중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창립 20주년과 25년을 맞던 이 시기에는 상록회를 조직하고 주차장과 본당 강단의 개조 등 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2002년 제 5대 담임 홍석환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Multimedia system이 설치되고 교회 Website를 Open하였으며, 노인 사역과 스테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Vision 선언문을 채택하고, 20년 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선교활동을 교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젊은 세대의 새로운 교인을 적극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2007년 3월)

2010년 7월 김용환 목사님이 제 6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후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본당과 교육관의 난방 시설이 완료되었고, 새로운 속회 운영과 제2차 5개년 중장기 사역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리: 교회 역사 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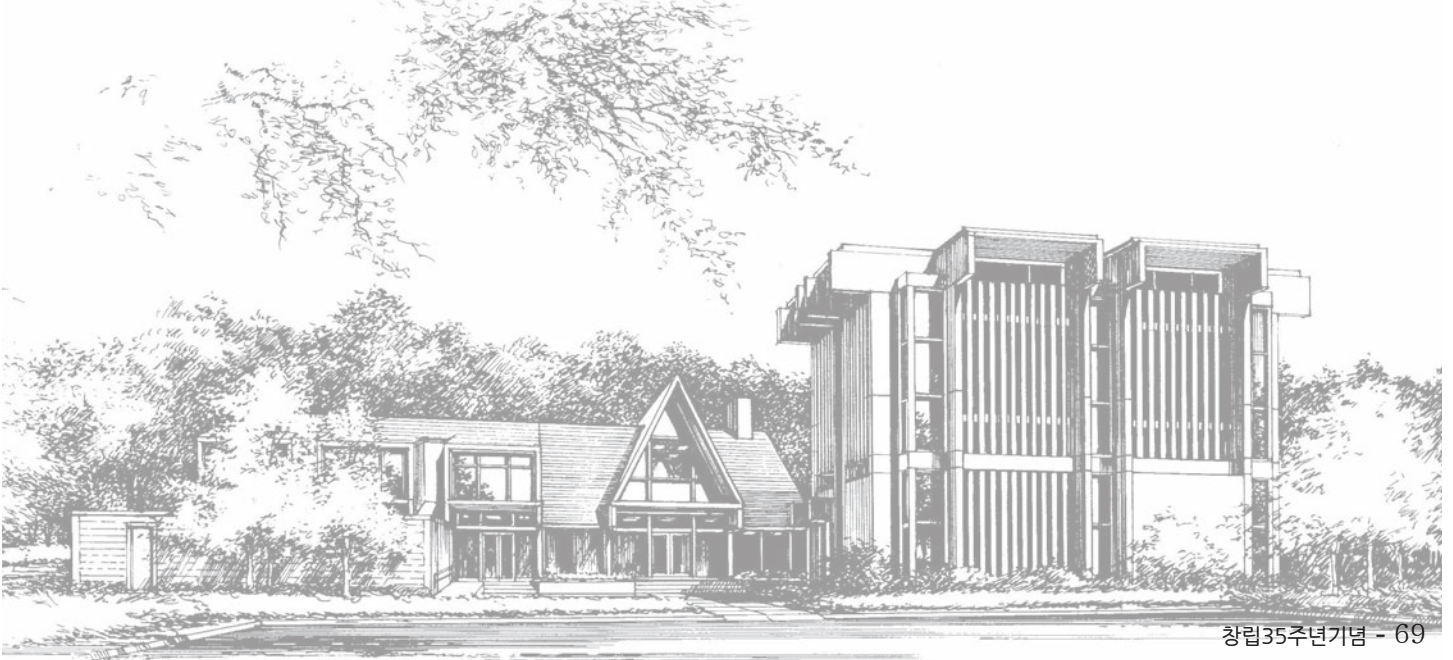
교회 연혁

- 1975 - 1977 앤도버/로렌스/매쉴런 지역의 교민들 성경공부 모임
- 1977 3.20 로렌스의 Christ UMC에서 첫 예배 (라영복 목사 집례)
 4.3 창립예배 (뉴잉글랜드에서 네번째 한인교회)
 7 여선교회 조직
 10.2 한국학교 설립
- 1978 10 남선교회 조직
- 1979 4.1 미국 UMC 교단 가입 예배 (Caroll 감독 집례)
- 1981 9.3 Andover 성전 헌납 예배 (Bashae 감독 집례)
- 1981 9.21 제2대 담임 최홍석 목사 부임
- 1982 1.1 김원엽 장로 이명
- 1986 6.22 교회의 주방 및 화장실 증축 완공
 7.1 제3대 담임 김 성 목사 부임
- 1987 4 소망회 조직
- 1988 1.17 교회헌장 채택
- 1989 3.5 영어 예배 시작
- 1992 3.14 창립15주년 기념예배. 박석만 장로, 조무선 장로 취임
 4.26 교육관 증축 완공 (규모: 3,200 sf, 건축 현금: \$73,714)
 뉴잉글랜드 한인회에 사무실 임대
- 1993 3 '믿음의 열매' 창간호 발간
- 1995 9.1 Andover Town의 어린이 교육기관 SHED에 교회시설 임대
- 1996 1.1 이관영 (감리사) 임시 목사 부임
 3.10 이문봉 장로 취임
 7.1 제4대 담임 전중현 목사 부임
- 1997 3 창립 20주년 기념 '믿음의 열매' 제2호 발간
- 1998 10 상록회 조직
- 1998 12.13 제1차 헌장 개정 - 한국학교 자율화, 부서 확충 및 조정
- 1999 11 주차장 확장 완료
- 2001 3.18 조남규 장로 취임
 6 담임목사 사택구입 및 전중현 목사 입주 (9월 3일)
 12 소망회와 상록회를 반석회로 통합

- 2002 1 본당의 강단 개조
- 3.17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신영목 장로 취임
- 7.1 제5대 담임 홍석환 목사 부임
- 12.15 제2차 헌장 개정 - 기획위원회 신설, 부서 조정
- 2003 5 본당에 multi-media system 설치, 교회 Website 오픈
- 2004 3.14 장병준 장로, 이동익 장로 취임
- 2006 3.19 남궁연 장로 취임
- 7 Beliz 단기 선교
- 10 소 예배실 완공

- 2007 3.18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백이태 장로, 윤익중 장로 취임
- '믿음의 열매' 제4호 발간, 비전선언문 작성 발표, 교회역사 수집 정리
- 2008 3 Social Ministry 확대 - 2중문화사역, 스테반사역, 메인 선교, 등

- 2009 10-12 목사관 매각, 교회 Website 확대 개편, 교회 도서관장 정비
- 2010 7.1 제6대 담임 김용환 목사 부임
- 12 헌장의 (누락, 불명확 조항 등) 정리
- 교회 난방시설 정비 완료
- 2011 1 속회 모임의 개편 운영
- 4 영어 예배 추진, 교회 Website 정비
- 2012 3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믿음의 열매" (제5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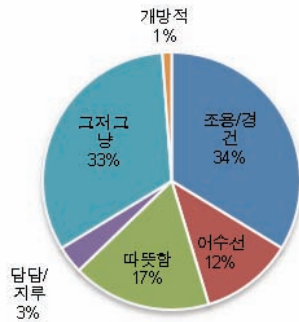


교인 의식 설문조사

교회의 사역 활동, 예배 과정, 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교인들이 느끼는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장단기 사역 방향과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지난 2002년 (창립25주년을 기념)의 설문 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10년 만에 다시 한번 (2012년: 창립 35주년 기념) 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예배부의 이기환 권사, 정유상 목사, 윤은상 집사, 김은숙 사모, 김아름 교우가 함께 기획, 수집, 분석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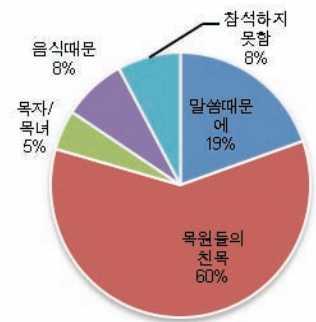
1.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분위기는?

- a. 조용하고 경건 (29명)
- b. 어수선하다 (10명)
- c. 따뜻하다 (15명)
- d. 답답하고 지루함 (3명)
- e. 그냥 그렇다 (28명)
- f. 개방적이다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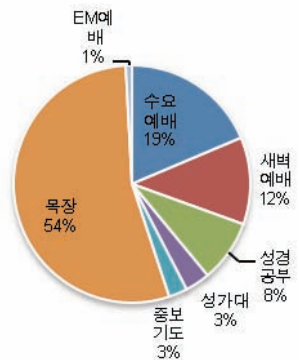
3. 목장 참석의 동기는?

- a. 말씀 때문에 (20명)
- b. 목원들의 친목 (61명)
- c. 목자, 목녀 (5명)
- d. 음식때문에 (8명)
- e. 참석하지못함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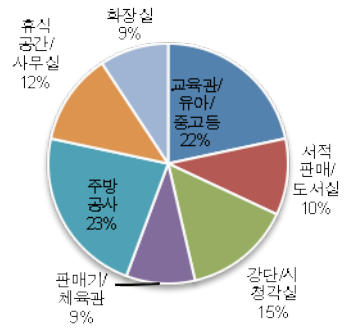
2. 교회 주일 예배 이외에 참석하는 집회/모임은?

- a. 수요예배 (22명)
- b. 새벽예배 (14명)
- c. 성경공부 (10명)
- d. 성가대 (4명)
- e. 중보기도 (3명)
- f. 목장 (64명)
- g. EM 예배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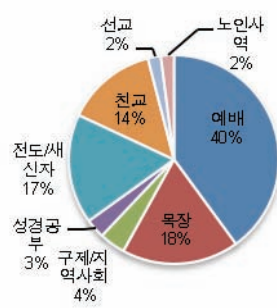
4. 우리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갖추었으면 하는 것 세가지는?

- a. 교육관 (17명)
- b. 신앙서적판매소 (4명)
- c. 강단개조 (5명)
- d. 자동판매기 (3명)
- e. 주방공사 (22명)
- f. 휴식공간 (8명)
- g. 시청각실 (9명)
- h. 도서실 (6명)
- i. 부교역자사무실 (5명)
- j. 체육관 (6명)
- k. 화장실 (9명)
- l. 유아/중고등부실 (4명)
- j. 건의함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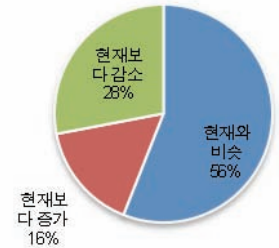
5. 현재 우리 교회의 사역 중 가장 원할한 사역은?

- a. 예배 (40명)
- b. 목장 (18명)
- c. 구제/사회봉사 (4명)
- d. 성경공부 (3명)
- e. 전도/새신자 (17명)
- f. 친교 (14명)
- g. 선교 (2명)
- h. 노인사역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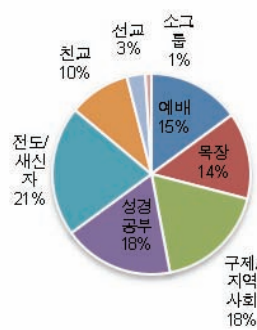
8. 10년 후 우리 교회의 교인 수의 변화는?

- a. 현재와 비슷 (42명)
- b. 현재보다 증가 (12명)
- c. 현재보다 감소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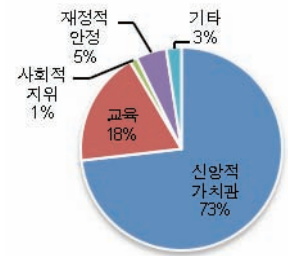
6. 더 개발되고 보충되어야 할 분야는?

- a. 예배 (15명)
- b. 목장 (14명)
- c. 구제/지역사회 (18명)
- d. 성경공부 (18명)
- e. 전도/새신자 (21명)
- f. 친교 (10명)
- g. 선교 (3명)
- h. 소그룹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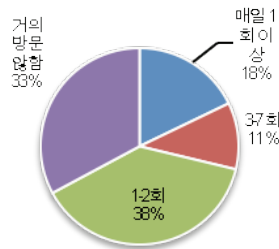
9.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남겨 주고 싶은 것?

- a. 신앙적 가치관 (60명)
- b. 교육 (15명)
- c. 사회적 지위 (1명)
- d. 재정적 안정 (4명)
- e. 기타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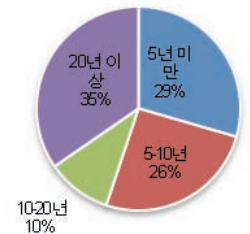
7. 일주일에 교회 홈페이지는 얼마나 자주 방문?

- a. 매일 1회 이상 (13명)
- b. 주 3-7회 (8명)
- c. 주 1-2회 (28명)
- d. 거의 방문 않함 (24명)



10. 우리 교회 등록한지 얼마나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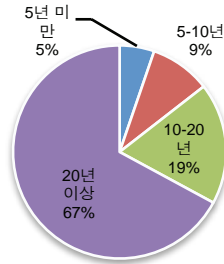
- a. 5년 미만 (23명)
- b. 5-10년 (20명)
- c. 10-20년 (8명)
- d. 20년 이상 (27명)



제5부: 사역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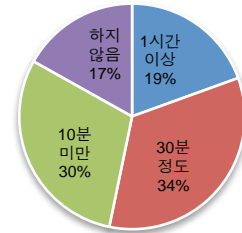
11. 신앙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나?

- a. 5년 미만 (4명)
- b. 5-10년 (7명)
- c. 10-20년 (14명)
- d. 20년 이상 (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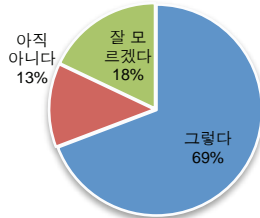
14. 하루에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은 얼마나?

- a. 1시간 이상 (15명)
- b. 30분 정도 (26명)
- c. 10분 미만 (23명)
- d. 하지 않음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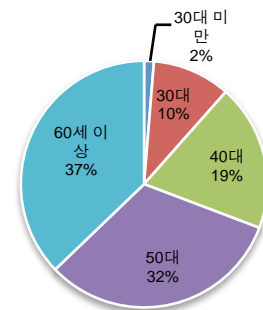
12.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 a. 그렇다 (54명)
- b. 아직 아니다 (10명)
- c. 잘 모르겠다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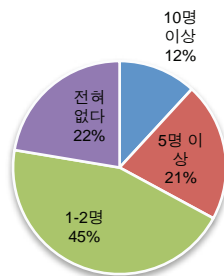
15. 현재 당신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

- a. 30대 미만 (1명)
- b. 30대 (8명)
- c. 40대 (15명)
- d. 50대 (25명)
- e. 60세 이상 (29명)



13.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경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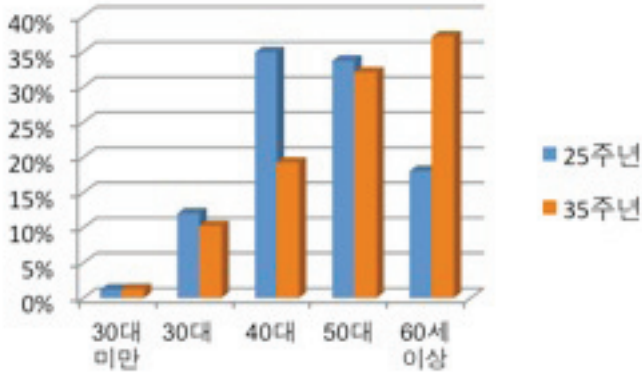
- a. 10명 이상 (9명)
- b. 5명 이상 (16명)
- c. 1-2명 (34명)
- d. 전혀 없다 (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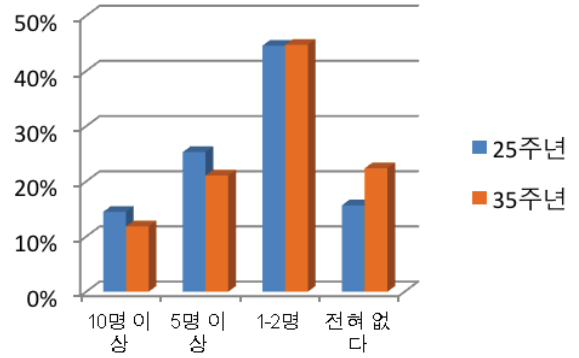
교회 창립 기념 설문 조사결과 대비

(25주년 vs 3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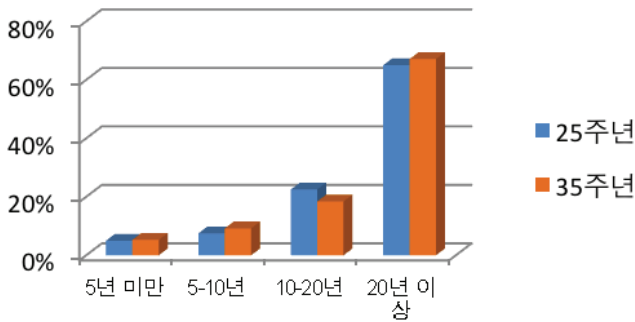
1. 현재 당신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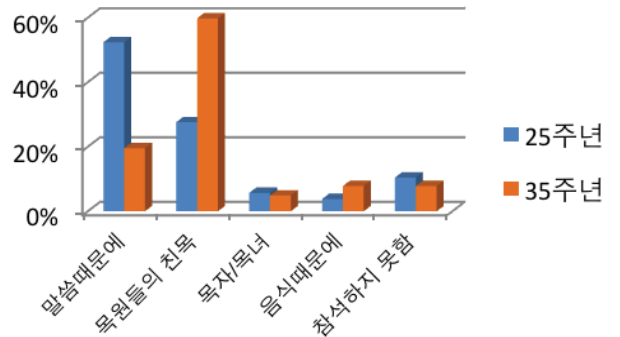
4. 당신은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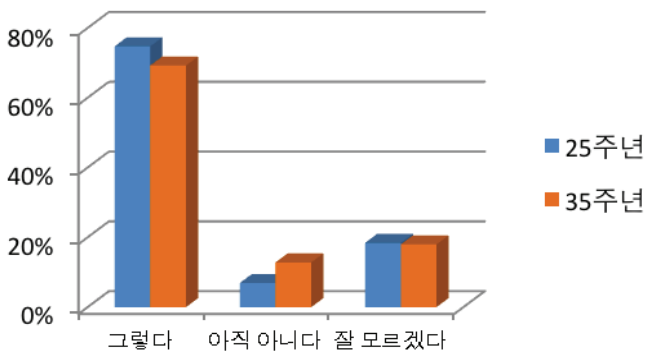
2. 당신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다?



5. 목장 (속회) 참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3. 자신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보 모음



사역자: 조태섭 전도사, 최해순 전도사
김용환 목사, 정유상 목사, Eric Yang 전도사



성가대장: 최순용
지휘자: 이지은
반주자: 배운정



기획위원회: 장병준, 신영목, 윤익중, 백이태, 이동익,
박재영, 박석만, 김원엽, 조남규, 남궁연



임원회 (구역회의)



예배부



재정부



재단이사회



목회협조위원회



주일 예배 전경



성찬식



동시통역 설교



1부 예배 기념 사진



2부 예배 찬양



임마누엘 성가대: 성탄 음악회



수요예배: 한마음 찬양대

김용환 목사 취임예배



추수 감사 예배



야외예배



속장 세미나



속장 속회 실습 모임



남선교회 선교 골프대회



봄맞이 대청소



상록회 특별 찬양



상록회 노래 자람

여선교회: 해외선교 뜨개질



추석 송편 만들기



성경 공부



성탄전야 토막극: 대장금



뉴잉글랜드 여선교회 찬양제 (2010)





새교우 환영회



캄보디아 교회 여름성경학교 활동 지원



남궁 장로 댁에서의 식사



중고등부: 야외 예배 기념 사진



필라델피아 선교 활동



중고등부 성탄 전야 발표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지원팀 (2011)





아동부 성탄 전야 발표



주일예배에서 찬양과 율동: 주일학교 (2011)



여름 성경학교 (2011)



배우고 익힌 것을 발표

편집 후기

김아름 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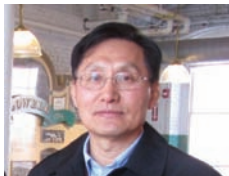
역사적인 창립 35주년 발간의 일원이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에 인상 깊었고 그렇게 오랜동안 이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해 오신 친절하고 너그러운 분들로 인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족임을 느끼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박순혜 집사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성도님들과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랜 작업 끝에 이루어낸 ‘믿음의 열매’를 보며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주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용기있게 ‘은혜의 길’을 걸어 가고 싶습니다.

윤은상 집사



교우들의 글와 사진 그리고 교회 자료의 모음인 ‘믿음의 열매’가 우리교회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군숙 권사



분별력있는 사고와 행함으로 젊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번 ‘믿음의 열매’가 큰 그림의 밑그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기환 권사



교회를 위한 일에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나누어 주시는 편집위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편집후기를 쓰면서 그 동안 좀 더 서둘러 일하지 못한 것, 함께 일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정유상 목사



창립 35주년 기념 ‘믿음의 열매’ 제5호의 편집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편집을 도우면서 교회의 역사와 교우들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여러가지로 애쓰신 편집위원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함께 섬긴 편집위원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홍성도 권사



전지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가꾸어 온 믿음의 나무에 알차고 건실한 열매가 많이 열린 것을 본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 제 5호

발행인: 김용환

편집인: 윤은상

표지: 김아름

인쇄: AlphaGraphics, Boston, MA

발행일: 2012년 3월 - 발행처: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는...



교인 사진 (2011년 대강절 첫 주일)

북부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는 1977년 보스톤 북부지역 한인 이민자들의 기독교 신앙을 터전으로하여 창립되었습니다. Andover에 위치한 현재의 교회건물을 1981년에 매입하고, 1992년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으로 새 교육관 건물을 완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역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예배 과정을 영어로 동시 통역함으로써 이중문화 가정과의 동반 사역에 노력하고 있으며, 감리교단 뉴잉글랜드연회가 추진하는 각종 선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과 더불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를 지원함으로써 2세들의 한국 문화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 “Revitalize each other to feed Boston and beyond”를 본 교회의 20년 장기 비전으로 채택하고, “새 생명을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근거하여, 네 단계의 Feeding Process를 따릅니다.

예배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성찬예배)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동시통역)
주일학교: 오전 11시
중고등부 (영어):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양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예배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www.hanboston.org
northbostonkumc@gmail.com (교회)

모임안내

주일 성경 공부: 9:30-10:30 a.m.
중보 기도회: 화요일 7:30 p.m.
English Ministry: 주일 1:00 p.m.
상록회 (노인) 사역: 매월 2,4주 수요일
속회모임: 각 속별로
한국 학교: 토요일 9:30 a.m.-12:30 p.m.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 Bring it

말씀과 수련으로 성숙하여 Take and bless it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Break it

세상을 위해 쓰임 받자 Be given to the world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4 Lowell Street, Andover, MA 01810 (978) 470-0621 www.hanboston.org